제4회 무주산골 영화제
2016.6.2 - 6.6
영화소풍을 위한 안내서
Muju Film Festival 2016
미네르 별책부록

무주군
MUJU COUNTY

2017 MUJU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 기 간 : 2017년 6월 22일~30일 ■ 장 소 : 태권도원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

2016. 8. 27.(토)~9. 4.(일)

Muju Firefly Festival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천년의 웅비
전북대학교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을 키우는 대학

낯선 세상 속으로 뛰어든다는 건 여간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곤 하니까요. 그러나 우린 함께였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벌레가 나오는 침대칸 기차에서 잠을 자고, 700마리 악어 떼에 소스라치기도 했으며, 허허벌판에서 스콜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전과 열정, 함께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시키는 일만 잘 해내는 모범생을 넘어 스스로 일을 찾아 협력하는 모험생이 세상을 이끌 수 있다는 생각에 스물한 살 소중한 추억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을 무기 삼아 거친 세상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대학 지원을 받아 국제개발협력 현장 체험기를 쓴 천방지축 예측불가 여대생 4인방. 왼쪽부터 김민아, 조세희, 공경진, 조혜령 학생.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업체

무주천마의 자존심 천마니 -Chunmani-

뇌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천마의 名家~ 천마니

천마진액/분말/환/고/기타 건강즙 제조 및 판매

전국 무료배송

※ 쇼핑몰에 접속하시면 더 많은 제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천마니 검색

천마 담 80ml x 30포

저온에서 농축하여 성분의 소실없이 생천마를 있는 그대로 담아 효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천마분말 스틱 5g x 100개

쪄서 말리지 않고 생천마 그대로 말려 천마고유 성분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천마환 스틱 5g x 100개

천마고유의 맛과 향 때문에 천마를 드시기 힘드신분께 권합니다.

● 천마니 쇼핑몰 www.chunmani.com ● 무료상담주문전화 080-099-0999

mimo CAMPING RESORT www.milmo.co.kr

빨강치마

*글램핑 내부 전경

한폭의 치마, 한폭의 그림, 그리고 한폭의 추억

무주 적상산

빨강치마로 오세요

예약문의 (주)밀모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산 235 TEL : 063-322-7000 / FAX : 063-322-7800

(C) MARKETIST
ALL RIGHTS RESERVED.

대명리조트 변산 아쿠아월드

아쿠아월드에 머무르는 동안
당신의 휴식은 특별해집니다.

온 몸이 짜릿해지는 시간, 대명리조트 변산 아쿠아월드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실내 아쿠아존, 실외 파도풀존, 야외노천탕, 사우나, 테라피 등의 다양한
아쿠아월드 시설은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고, 물놀이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DAEMYUNG
RESORT
BYEONSAN

대명리조트 변산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변산해변로 51　객실 예약 문의 : 063-580-8725 / 아쿠아 문의 : 063-580-8775

MIAPPEAL

자연주의 화장품 **미어필**

물과 바람과 공기,
제주의 자연이 빚어냅니다.

청정한 자연 속 건강한 아름다움..!!

깨끗한 물과 바람, 공기
그리고 그 어느 것 하나 태고의 신비가 미치지 않은 것이 없는
청정섬 제주에 기반하여 자연 속
그린 에너지를 화장품에 담고자 합니다.

사람을 먹이고 키우며 살게 하는 자연은
화장품기업 미어필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자연으로부터,
과하지 않은 순수한 아름다움을 전합니다.

TEL_+82-(0)64-756-3357 | Email_info@miappeal.co.kr | www.miappeal.co.kr

www.hhillsresort.co.kr

무주에는 구천동 33경의 비경과 함께 H힐스리조트가 있습니다

사계절 색다른 구천동 33경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H힐스리조트는
아늑한 단독형 객실 및 연회시설,
다양한 크기의 세미나실 및 대운동장 완비로
무주 여행객을 위한 숙박은 물론,
돌잔치, 회갑연 등의 가족행사나
대학생 MT, 직장 연수 등의 단체행사에도
부족함이 없는 복합형 리조트입니다.

지금 무주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H힐스리조트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연을 닮은, 자연을 담은 리조트

Hhills resort

예약문의 1600-0692(代)

전리북도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135-15

Presenting Sponsor

전라북도 · 무주군 MUJU COUNTY · 전주 MBC

Premium Sponsor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 · 천년의 웅비 전북대학교

Main Sponsor

THE REDFACE OUTDOOR CLASSIC · 삼백그릇의 정성 삼백집 · 무주천마의 자존심 천마니 -Chunmani- · milmo 캠핑리조트 빨강치마 · BARREL · hite · 푸르빌 · DAEMYUNG RESORT BYEONSAN

Festival Sponsor

질러야 제맛! 질러 · Fontana 폰타나 · 여명808 · MIAPPEAL 미어필 · 덕분/레/뜸 석정수 · 삼천리자전거 · Hhillsresort · HUMMING ROSE SHOP & STUDIO · ㅅㄱㄱㅈ · COFFEE & CINEMA BEANSROAD

Partner

Korean Film Archive 한국영상자료원 ·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DEOGYUSAN NATIONAL PARK OFFICE · (주)문화나눌이 · 서울역 미디어센터 · Communications ON · SCSC 작은영화관 · 한국 休시네마 · 전북대학교 신한류창의인재양성사업단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

Muju Film Festival 2016

mjff

주최 무주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

주관 무주산골영화제 집행위원회, (재)무주산골문화재단

후원 전라북도, 무주군, 전주 MBC

Contents

MJFF 2016

포스터 & 로고 … 11
페스티벌 프렌즈 … 12
행사공간지도 … 13
상영시간표 … 16
셔틀버스시간표 … 18
교통정보 … 21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를 시작하며 … 22
슬로건 … 24
시상내역 & 심사위원 … 25

MJFF 2016 프로그램

개·폐막작 … 28
창 窓 WINDOW of CINEMA … 32
판 場 PICNIC CINEMA … 43
락 樂 SHOUTING CINEMA … 60
숲 林 CAMPING CINEMA … 64
길 路 TOWN CINEMA … 68

MJFF 2016 이벤트

행사공간 소개 … 75
공연·이벤트 소개 … 79

포스터 & 로고

Poster

일러스트레이션 박디(박영준), 디자인 page9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 포스터는 산골, 캠핑, 영화라는 무주산골영화제만의 특별한 산속 영화관의 느낌을 살리며, 영화제 고유의 색상을 도드라지게 표현하여 초여름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시간적 경계를 허무는 에메랄드빛의 배경을 통해 신비로운 느낌의 무주로 '영화 소풍'을 떠나는 귀여운 일러스트 캐릭터들을 아기자기하게 표현했다.

mjff

Symbol mark

무주산골영화제
Muju Film Festival 2016

Logotype

F·I Festival Identity

디자인 page9

'산'은 뾰족한 느낌을 주지만 '산골'이 주는 어감은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하다. 이 '산골'이라는 이름에 착안하여 둥글고 따뜻한 느낌을 표현했다. 또한 나무 하나 하나가 모여 숲을 이루듯 둥글고 부드러운 원기둥 모듈 하나하나를 조각 맞추기처럼 형상화했다. 주 색조는 푸른 숲을 상징하는 초록색으로 하되, 반딧불이의 빛을 상징하는 노란색과 꽃들을 연상할 수 있는 진분홍색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페스티벌 프렌즈

오지호 & 손은서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의 '페스티벌 프렌즈(Festival Friends)'는 배우 오지호와 손은서다. 무주산골영화제의 건강한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배우 오지호는 <환상의 커플>(MBC), <추노>(KBS 2TV) 등 많은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아 시청률을 견인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최근 드라마 <마이 리틀 베이비>(MBC)와 예능 <정글의 법칙 in 파나마>(SBS)에서 친근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오지호와 함께 페스티벌 프렌즈로 선정된 배우 손은서는 드라마 <내 딸 꽃님이>(SBS), 영화 <여고괴담5>, <창수>를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았으며, 최근에는 드라마 <내 마음 반짝반짝>(SBS)과 <별난 며느리>(KBS 2TV)에 출연하여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예능 <정글의 법칙 in 파나마>(SBS)에서는 밝고 털털한 모습을 보여주며 또 다른 매력을 뽐낸 바 있다. 현재 오지호와 손은서는 영화 <대결>의 출연을 확정짓고, 함께 연기 호흡을 맞추며 많은 영화인들과 관객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행사공간지도

설렘존 EXCITING ZONE

행사공간 무주 등나무운동장, 예체문화관 일대

공간구성 개막식, 야외상영('락'섹션), 야외공연
무주산골영화관 반디관('창'섹션, 폐막식), 무주산골영화관 태권관('판'섹션),
예체문화관 대공연장('판'섹션), 야외무대, 핸드프린팅, 포토존(국·내외 상영작), 전시(프로파간다 포스터 전시),
먹거리장터, 산골공방(원데이 클래스), 이벤트/체험부스, 안내/기념품 부스, 사랑의 손편지쓰기, 관객 쉼터

울림존 SYMPATHY ZONE

행사공간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內 대집회장

공간구성 야외상영('숲'섹션), 음악공연

어울림존 HARMONY ZONE

행사공간 무주 반딧불시장, 전통문화의 집, 안성면 두문마을

공간구성 실내상영('판'섹션), 야외상영('길'섹션), 낙화놀이(전통불꽃놀이)

6.2 목 개막일

공간	섹션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00:00	01:00
무주 등나무운동장	개막									그린 카펫	[개막식 + 개막작 : 2016 필름 판소리, 춘향뎐]Ⓐ p.28						

6.3 금

공간	섹션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00:00	01:00
산골영화관 반디관	창		양치기들⑮ 80분 p.38			스틸 플라워⑮ 83분 p.37 GV		최악의 여자⑮ 94분 p.40 GV			헤이트풀8⑱ 167분 p.59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판		커트 코베인 : 몽타주 오브 헥⑱ 145분 p.48			커튼콜⑮ GV 99분 p.46		손 더 쉽Ⓐ 85분 p.49			다가오는 것들⑮ 100분 T p.51		마이단⑫ 130분 p.47				
산골영화관 태권관	판		그런날 사이에 어떤날⑮ 90분 p.50		스티브 잡스⑫ 122분 p.54			해안가로의 여행⑮ 129분 T p.58			한나 아렌트⑮ T 113분 p.58						
전통문화의 집	판		나의 어머니⑫ 106분 p.50			족구왕⑮ GV 104분 BA p.46		크로닉⑮ 94분 p.56			렛 미 인⑮ 114분 p.52						
무주 등나무운동장	락										강아솔 + 김반장과 윈디시티 p.79	셀록 2세 with 신나는 섬 45분Ⓐ p.61	대배우⑫ GV 108분 p.61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대집회장	숲										김목인 + 빅베이비드라이버 p.80	요시노 이발관 Ⓐ 95분 p.65	카모메 식당Ⓐ GV 102분 p.65			안경Ⓐ 106분 p.65	
반딧불시장 원형광장	길										p.71	주민 시네마 스쿨	산이 울다⑮ 107분 p.70				
안성면 두문마을	길											낙화놀이 p.81	메밀꽃, 운수좋은 날, 그리고 봄봄Ⓐ 90분 p.69				

6.4 토

공간	섹션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00:00	01:00
산골영화관 반디관	창		소년, 달리다⑫ GV 104분 p.36		사월의 끝⑱ GV 120분 p.35			델타 보이즈⑮ GV 126분 p.34			혼자⑮ GV 90분 p.42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판		오슬로, 8월 31일⑮ 95분 p.55		괴물의 아이⑫ 119분 p.49			우리 연애의 이력⑮ 99분 p.46			선생님 일기Ⓐ 110분 p.53		리슨 투 미 말론⑱ 95분 p.47				
산골영화관 태권관	판		만선⑮ 84분 p.45		슌응자⑱ T 111분 p.54			시선 사이⑮ GV 95분 p.45			더 디너⑱ T 95분 p.51						
전통문화의 집	판		쿠미코, 더 트레저 헌터⑮ 104분 p.56			사울의 아들⑱ 107분 p.53		바닷마을 다이어리⑫ 128분 p.52			히어애프터⑮ 102분 p.59						
무주 등나무운동장	락										음악을 여는 국악콘서트 '락' p.79	키드 with 리아노 폼Ⓐ 53분 p.62	동주⑫ 110분 p.62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대집회장	숲										신나는 섬 p.80	바다의 노래 : 벤과 셀키 요정의 비밀Ⓐ 93분 p.66	아비정전⑮ T 100분 p.66		브로크백 마운틴⑮ 133분 p.66		
반딧불시장 원형광장	길										p.71	주민 시네마 스쿨	트윈스터즈 89분 ⑫ p.70				
안성면 두문마을	길											낙화놀이 p.81	인생은 아름다워Ⓐ 116분 p.69				

GV 관객과의 대화 BA 배리어프리 영화 T 산골토크 Ⓐ 전체관람가 ⑫ 12세이상관람가 ⑮ 15세이상관람가 ⑱ 청소년관람불가

BA 배리어프리 영화 시청각장애인들도 불편없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든 음성해설과 한국어자막이 있는 특별 버전의 영화.

GV 관객과의 대화 영화 상영 후, 감독이나 배우와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T 산골토크 영화 상영 후 영화 전문가와 영화에 대한 깊이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6.5 일

공간	섹션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00:00	01:00
산골영화관 반디관	창		공부의 나라⑫ 90분 p.33 GV			어린이 정경⑫ 94분 p.39 GV			프레스 : PRESS⑮ 95분 p.41 GV			인 더 새도우 오브 우먼⑮ 74분 p.56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판		피닉스⑮ 98분 p.57			극장판 울트라맨 우주 몬스터 대결전 Ⓐ 95분 p.49			텐저린⑱ 88분 p.57			더 코뮌⑱ 90분 p.52		시티즌포⑫ 117분 p.47			
산골영화관 태권관	판		유레카⑫ 217분 p.55						환상의 빛⑮ 110 p.59			벨벳 골드마인⑱ T 124분 p.53		헝거⑱ 96분 p.58			
전통문화의 집	판		쌀⑫ 124분 p.45			하루⑮ 87분 p.57			너는 착한 아이Ⓐ 121분 p.51			슬로우 웨스트⑮ 84분 p.54					
무주 등나무운동장	락											전주 MBC 라디오 공개방송 <두시만세> p.79		글로리데이⑮ 93분 p.63 GV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대집회장	숲											뮤즈그레인 + 이상한 계절 p.80	비틀즈: 하드 데이즈 나이트Ⓐ 88분 p.67	헤이마 Ⓐ 97분 p.67 T	시규어 로스 : 이니Ⓐ 74분 p.67		
반딧불시장 원형광장	길											p.72	주민 시네마 스쿨	쇼생크 탈출⑮ 142분 p.70			
안성면 두문마을	길												낙화놀이 p.81	대호⑫ 139분 p.69			

6.6 월 폐막일

공간	섹션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00:00	01:00
산골영화관 반디관	폐막			[시상식+폐막작] p.31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판		에이미⑱ 127분 p.48			침묵의 시선⑮ 103분 p.48											
산골영화관 태권관	판			엑스 마키나⑱ 108분 p.55		45년 후⑮ 95분 p.50											

관람정보

무료상영·선착순 입장
- 모든 영화는 무료로 상영됩니다.
- 선착순으로 입장하셔서 원하시는 자리에 앉아주세요.

실내 상영관 유의사항
- 상영작 관람등급에 따라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은 꺼주세요. 사진, 영상 촬영은 금지됩니다.

GV 관객과의 대화 관련 유의사항
- '관객과의 대화' 일정은 게스트의 방문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변동사항은 홈페이지나 SNS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상영관주소

무주 등나무운동장 / 무주 예체문화관(산골영화관)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17

전통문화의 집 (무주군 민원봉사과 2층)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519-7
063-322-3174

무주 반딧불시장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장터로2(읍내리 1152)

안성면 두문마을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덕유산로 876 두문마을회관

셔틀버스 시간표

※ 각 장소의 시간은 버스 출발시간 입니다.
※ 무주공용버스터미널과 예체문화관 사이 이동시간은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됩니다.
※ 배차간격 및 소요시간은 교통상황, 관객대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 무주 읍·면간 이동시 평균 30분~1시간 정도 소요 되오니, 영화상영 시간표와 공연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막일 6/2 목

하행노선 H힐스리조트 ➡ 예체문화관

H힐스리조트	토비스 콘도	구천동 정류소	덕유산레저 바이크텔	빨강치마 리조트	예체문화관
17:00	17:00	17:20	17:25	17:50	18:10

상행노선 예체문화관 ➡ H힐스리조트

예체문화관	빨강치마 리조트	덕유산레저 바이크텔	구천동 정류소	토비스 콘도	H힐스리조트
22:00	22:20	22:50	22:55	23:10	23:10
24:00	24:20	24:50	24:55	25:10	25:10

폐막일 6/6 월

하행노선 H힐스리조트 ➡ 예체문화관

H힐스리조트	토비스 콘도	덕유산레저 바이크텔	빨강치마 리조트	예체문화관
10:00	10:00	10:20	10:40	11:00

영화제 기간 6/3 금 ~ 6/5 일

상행노선 예체문화관 ➡ H힐스리조트

	예체문화관	덕유산레저 바이크텔	구천동 정류소	덕유대 대집회장	구천동 정류소	토비스 콘도	H힐스리조트
① 1호차	11:00	11:30	11:35	11:45	11:50	12:00	12:00
② 2호차	12:00	12:30	12:35	12:45	12:50	13:00	13:00
③ 1호차	14:00	14:30	14:35	14:45	14:50	15:00	15:00
④ 2호차	15:00	15:30	15:35	15:45	15:50	16:00	16:00
⑤ 1호차	16:00	16:30	16:35	16:45	16:50	17:00	17:00
⑥ 2호차	17:00	17:30	17:35	17:45	17:50	18:00	18:00
⑦ 1호차	19:00	19:30	19:35	19:45	19:50	20:00	20:00
⑧ 2호차	20:00	20:30	20:35	20:45	20:50	21:00	21:00
⑨ 1호차	21:00	21:30	21:35	21:45	21:50	22:00	22:00
⑩ 2호차	22:00	22:30	22:35	22:45	22:50	23:00	23:00
⑪ 1호차	23:00	23:30	23:35	23:45	23:50	24:00	24:00
⑫ 2호차	24:00	24:30	24:35	24:45	24:50	25:00	25:00

영화제 기간 6/3 금 ~ 6/5 일

하행노선 H힐스리조트 ➡ 예체문화관

	H힐스리조트	토비스 콘도	구천동 정류소	덕유대 대집회장	구천동 정류소	덕유산레저 바이크텔	예체문화관
① 1호차	10:00	10:00	10:10	10:20	10:25	10:30	10:50
② 2호차	11:00	11:00	11:10	11:20	11:25	11:30	11:50
③ 1호차	12:00	12:00	12:10	12:20	12:25	12:30	12:50
④ 2호차	13:00	13:00	13:10	13:20	13:25	13:30	13:50
⑤ 1호차	15:00	15:00	15:10	15:20	15:25	15:30	15:50
⑥ 2호차	16:00	16:00	16:10	16:20	16:25	16:30	16:50
⑦ 1호차	17:00	17:00	17:10	17:20	17:25	17:30	17:50
⑧ 2호차	18:00	18:00	18:10	18:20	18:25	18:30	18:50
⑨ 1호차	20:00	20:00	20:10	20:20	20:25	20:30	20:50
⑩ 2호차	21:00	21:00	21:10	21:20	21:25	21:30	21:50

심야 노선 덕유대 대집회장 ➡ H힐스리조트 ➡ 예체문화관

	덕유대 대집회장	구천동 정류소	토비스 콘도	H힐스리조트	덕유산레저 바이크텔	빨강치마 리조트	예체문화관
1호차	00:30	00:35	00:45	00:45	01:05	01:25	01:35
2호차	02:00 영화종료시 출발	02:05	02:15	02:15	02:35	02:55	03:05

영화제 기간 6/3 금 ~ 6/5 일

순환노선 예체문화관 ⇄ 빨강치마 리조트

	예체문화관	전통문화의집	반딧불시장	빨강치마 리조트	반딧불시장	전통문화의집
1회	11:00	11:05	11:10	11:30	11:50	11:55
2회	12:00	12:05	12:10	12:30	12:50	12:55
3회	14:00	14:05	14:10	14:30	14:50	14:55
4회	15:00	15:05	15:10	15:30	15:50	15:55
5회	16:00	16:05	16:10	16:30	16:50	16:55
6회	17:00	17:05	17:10	17:30	17:50	17:55

낙화놀이 노선 예체문화관 ⇄ 안성면 두문마을

	예체문화관	전통문화의집	반딧불시장	빨강치마 리조트	두문마을	빨강치마 리조트
7회	19:00	19:05	19:10	19:30	19:50	20:30
8회	21:00	21:05	21:10	21:30	21:50	22:30
9회	23:00	23:05	23:10	23:30	23:50	24:30

시외지역 셔틀버스 운행

시외지역 셔틀버스
6/3 금 ~ 6/5 일

각 지역 출발

노선	출발시간	소요시간	출발지	도착지
서울 → 무주	08:00	약 3시간 30분 소요	양재역 AT센터 (신분당선 4번출구)	무주 예체문화관
대전 → 무주	09:00	약 1시간 30분 소요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	
전주 → 무주	09:00	약 1시간 30분 소요	전주 종합경기장 외8문 (삼성디지털프라자 맞은편)	

무주 출발

노선	출발시간	소요시간	출발지	도착지
무주 → 서울	20:00	약 3시간 30분 소요	무주 예체문화관	양재역 AT센터 (신분당선 4번출구)
무주 → 대전	21:00	약 1시간 30분 소요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
무주 → 전주	21:00	약 1시간 30분 소요		전주 종합경기장 외8문 (삼성디지털프라자 맞은편)

※ 운영 당일 교통상황에 따라 소요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시외지역 셔틀버스 신청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영화제 공식홈페이지(www.mjff.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통정보

승용차

서울 서울 경부고속도로 → 무주IC → 무주 3시간 소요
대전 대전 통영간고속도로 → 무주IC → 무주 1시간 소요
대구 대구 경부고속도로 → 황간IC, 영동IC → 무주 2시간 30분 소요
전주 익산 포항고속도로 → 무주IC → 무주 1시간 30분소요 (30번 국도 이용가능)
부산 부산 남해고속도로 → 진주JC → 무주IC → 무주 3시간 30분 소요
광주 대구광주(88)고속도로 → 동남원IC → 장수IC → 대전 통영간고속도로 → 무주 2시간 소요

기차

서울 서울역 → 영동역 → 무주 2시간 40분 소요
대구 대구역 → 영동역 → 무주 2시간 소요
부산 부산역 → 영동역 → 무주 3시간 10분 소요
※ 무주는 기차역이 없는 관계로 영동역에서 무주간 이동은 직행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KTX 이용시 대전역 하차 후 대전복합터미널에서 대전 - 무주간 시외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속·시외버스터미널 ※ 무주공용버스터미널 063) 322-2245

서울 서울 남부터미널 → 무주공용버스터미널 2시간 40분 소요
대전 대전 복합터미널 → 무주공용버스터미널 50분 소요
전주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 무주공용버스터미널 2시간10분 소요
광주 광주 버스터미널 → 무주공용버스터미널 3시간 20분 소요

무주공용버스터미널 시간표 (서울, 대전, 전주, 광주, 금산, 영동)

서울남부 ⇢ 무주	무주 ⇢ 서울남부	전주 ⇢ 무주	무주 ⇢ 전주	대전 ⇢ 무주	무주 ⇢ 대전	금산 ⇢ 무주	무주 ⇢ 금산
2시간 40분 소요 (13,400원)		2시간 10분 소요 (9,700원)		50분 소요 (4,400원)		30분 소요 (3,200원)	
07:40	09:45	06:45	06:40	07:20	07:00	09:00	07:00
09:20	11:05	07:20(구천동)	08:10	08:00	07:40	11:00	10:00
10:40	14:40	08:40	09:15	09:00	08:30	14:00	12:10
13:40	15:35	09:40	10:30	09:40	09:00	15:00	13:10
14:35	17:45	10:20	11:20	10:30	09:50	16:40	15:20
광주 ⇢ 무주	무주 ⇢ 광주	11:10	12:20	11:10	10:30	18:40	17:25
3시간 30분 소요 (16,500원)		12:35	13:30	12:00	11:30	영동 ⇢ 무주	무주 ⇢ 영동
07:05	06:50	13:40(구천동)	15:00	12:50	12:35	30분 소요 (3,300원)	
09:15	08:50	14:45	16:00	13:20	13:20	10:00	09:00
11:10	10:00(남원)	15:50	16:55	14:00	14:00	15:40	14:00
13:20	12:05	16:45(구천동)	17:40	14:50	14:35		
15:00	13:50	18:20(구천동)	18:15	15:20	15:10		
17:00	15:45	19:35	19:00	16:10	16:10		
	17:40	20:35	19:55	16:50	16:40		
				17:30	17:35		
				18:10	18:25		
				19:00	19:30		
				20:00	20:00		
				21:00	20:40		

※ 대전 ↔ 무주간 버스는 1일 19회 운행 됩니다.
따라서 배차가 넉넉한 대전을 경유하셔도 됩니다.
※ 대전 터미널은 고속·시외버스가 한곳에 위치한 대전 복합터미널입니다.
※ 2016년 5월 기준. 상기 버스 시간표와 요금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를 시작하며

1996년, 대한민국의 첫 국제영화제였던 부산국제영화제가 첫 항해를 시작한 이후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국에는 많은 국제영화제와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다양한 콘셉트를 가진 영화제들이 연달아 생겼습니다. 그 중 몇몇 영화제들은 잘 성장했고, 몇몇 영화제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100여개의 크고 작은 영화제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이 수많은 영화제들은 영화와 관객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1년에 한 번 오작교 위에서 만나 사랑을 확인하는 견우와 직녀처럼, 영화와 관객은 1년에 한 번씩 영화제라는 다리를 통해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영화제는 자본이 중심이 되는 영화산업 속에서 영화와 관객이 가장 순수하게 만날 수 있는 다리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영화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그렇질 못합니다. 영화제 내부에는 늘 자본과 정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본이나 정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영화제란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여 년간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으며 양적, 질적으로 급성장해온 대한민국 영화제의 역사는 영화제가 자본과 정치를 상대로 벌인 설득과 타협, 투쟁의 역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픈 역사는 또 다른 모습으로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네 번째 영화소풍길을 떠나는 무주산골영화제는 2013년 첫 영화소풍길을 시작하며 제안했던 영화제의 본질과 가치를 다시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작은 영화제를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께 한 번 더 영화제가 본래 가지고 있던 의미와 가치를 돌아보고, 한발 더 나아가 영화제와 관객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와 존중의 관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영화제는 어떤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어떤 위험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영화제의 이런 용기는 우리 영화제의 관객이 설사 이 영화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 영화를 궁금해 하고, 보고 싶어 할 거라는 믿음 위에서 생겨납니다. 반면, 관객은 영화제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영화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영화제의 선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런 관객의 믿음이 바탕이 될 때 영화제는 더욱 자유롭게 영화를 선택할 수 있고, 관객은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화제는 영화제와 관객 사이에 이러한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시작될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영화제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쉽지 않은 시간을 견디면서 어느덧 4회를 맞이한 무주산골영화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담아낸 27개국 82편의 영화들을 선보입니다. 이 영화들을 통해 지난 3년간 무주산골영화제와 관객 여러분이 함께 쌓아온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다시 확인하고, 서로를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또 한 번의 아름다운 만남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영화와 관객을 위한 작은 영화축제, 무주산골영화제가 설렘, 울림, 어울림의 네 번째 영화소풍길에 영화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슬로건

설렘
울림
어울림

'설렘' 가득한 영화소풍길, 영화야! 소풍갈래?

'소풍'은 잠시 일상을 뒤로 하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설렘 가득한 작은 여행길입니다. 익숙한 일상의 관성에서 벗어난 이 소박한 여행을 통해 우리는 일상을 지속할 수 있는 삶의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무주산골영화제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열린 공간을 스크린 삼아 무주의 주민들과 무주를 찾아온 모든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소풍 같은 영화제를 만들어 가려 합니다.

새로운 시선의 영화와 조우하는 '울림'의 창, 무주산골영화제!

영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담은 '창'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입니다. 사각의 프레임 속에 펼쳐지는 다채로운 세상은 우리 시선과 맞닿으며 마음 속에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마음을 울리기도 합니다. 그 충돌과 울림은 깊이에 따라 '나'와 '너'의 세계에 머무르기도 하고, '우리'로 이어지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무주산골영화제는 무주를 찾는 모든 관객을 향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펼쳐 보이는 영화라는 '창'을 활짝 열어 젖혀보려고 합니다. 미지의 세상을 향해 열린 우리의 '창'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의 영화로, 즐거움과 외침의 영화로,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울림'의 영화로 여러분과 마주할 것입니다.

자연 속 스크린, 청정 자연과 어우러지는 '어울림'의 공간, 무주!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무주의 청정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무주산골영화제는 이제껏 만나지 못했던 특별한 영화 감상의 체험을 선사합니다. 반짝이는 별과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푸른 산과 숲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무주는 무주산골영화제와 함께 남녀노소 모든 관객이 영화와 함께 어우러지는 열린 야외극장으로, 휴식과 치유를 위한 숲 속 극장으로, 관객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공감의 극장으로,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을의 작은 극장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시상내역 & 심사위원

뉴비전상 (대상) 상금 1,000만원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인 '창' 섹션에서 상영되는 10편의 영화 중에서 한국영화의 미학적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시선과 도전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영화적 비전을 보여준 최우수 영화에 상금 1,000만원을 수여한다.

견지상 (감독상) 상금 500만원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인 '창' 섹션에서 상영되는 10편의 영화 중에서 감독 자신만의 확고한 영화언어를 통해 한국영화의 지평을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영화에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심사위원

김혜리 (기자)

김혜리는 1995년부터 영화주간지 '씨네21'에서 영화와 영화인에 대한 글을 써 왔다. 현재 '씨네21'에 칼럼 '김혜리의 영화의 일기'를 연재 중이며 SBS 라디오 프로그램 <FMzine>의 '수요 재개봉관' 코너에서 영화를 소개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영화야 미안해』, 『영화를 멈추다』 인터뷰 모음집 『진심의 탐닉』, 미술 에세이집 『그림과 그림자』 등이 있다.

서영주 (화인컷 대표)

서영주 대표는 2000년 국내 최초로 한국영화 해외세일즈 전문회사인 '씨네클릭아시아'를 설립하여 <올드보이>, <괴물> 등 수많은 한국영화의 해외세일즈를 총괄했다. 그리고 2008년에는 '화인컷'을 설립하여 현재 150여 편의 한국영화의 해외 세일즈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국영화의 제작 및 투자, 해외공동제작을 담당하는 한국의 대표 글로벌영화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또한 2014년에는 한국의 배우, 작가, 감독을 해외와 연결시키는 '종합 에이전시 회사'를 목표로 배우 매니지먼트 사업을 담당하는 '화인컷엔터테인먼트'와 '작가 에이전시(WAF)'를 설립하여 또 한 번의 도약을 도모하고 있다.

전계수 (영화감독)

전계수 감독은 2006년 데뷔작 <삼거리 극장>으로 백상예술대상 신인감독상을 수상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9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프로젝트 <시선 1318> 중 단편 <유앤미>을 연출했고, 2012년에는 공효진, 하정우 주연의 두번째 장편 영화 <러브픽션>을 연출하여 백상예술대상 시나리오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 뮤지컬 <내사랑 내곁에>의 각본과 연출을 맡았다. 이후 2014년에는 제2회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작이었던 영화복합공연 <이국정원>의 각색과 연출을 맡아 호평을 받았다.

시상내역 & 심사위원

전북영화비평포럼상 상금 300만원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인 '창' 섹션에 상영되는 10편의 영화 중에서 전북영화비평포럼 회원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선정한 최우수 영화에 상금 300만원을 수여한다.

심사위원

고영주

이리여자고등학교 영어교사, 현재 전북교육정책연구 파견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전북영화비평포럼, 익산영화인문모임, 전북영상교육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영화와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고 열린전북, 참소리에 영화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김성희

(사)전북독립영화협회 이사 및 백제예술대학교 방송시나리오극작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북영화비평포럼, 문학과 영상학회, 영미드라마학회, 세계문학비교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디아스포라적 사유와 삶을 스토리텔링의 화두로 삼는 영화인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다. 공저로 『영미문학, 영화로 읽기』와 『전북영화비평포럼 평론집 I,II』이 있으며, 역서로 『진짜 사랑이란?』, 『사랑의 발명』, 『셰익스피어 인 러브』, 『로버트펠코너-어느 음악가의 여정』 등이 있다.

정동섭

전북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 마드리드대학교 문학박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영화사 및 영화이론 전공). 한국스페인어문학회 학술이사 및 편집위원. 전북영화비평포럼 회원. 저서: 『돈 후안, 치명적인 유혹의 대명사』, 『전주에서 영화를 읽다 1, 2』(공저) 역서: 『스페인 영화사』, 『바람의 그림자』, 『파스쿠알 두아르테 가족』, 『스페인문학의 사회사』(전5권)등

전북영화비평포럼

전북지역의 교사, 교수 등 시민 중심의 영화 마니아들이 의미 있는 영화감상과 글쓰기를 통해 영화담론과 영상문화의 저변확대를 꾀하기 위해 2007년 2월 전북영화비평포럼을 결성했다. 비평 저변 확대를 위해 평론 스쿨과 고전영화 상영전을 개최하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꾀하고, 전북지역의 영화 관련 단체와 연대하며 전북 영상문화의 토대를 만드는 디딤돌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년 12월, 영화비평집 『전주에서 영화를 읽다』를 발간했다.

무주관객상 상금 200만원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인 '창'섹션에 상영되는 10편의 영화 중에서 무주에 거주하는 영화애호가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최우수 영화를 선정하여 상금 200만원을 수여한다. 무주 영화동호회 '무비인 무주' 소속 회원 3인(황조연, 임선희, 홍한일)이 심사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Program
프로그램

창窓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
WINDOW OF CINEMA
새로운 시선의 영화를 만나다!
상영장소 : 무주산골영화관 반디관

판場
PICNIC CINEMA
영화보러 소풍가자!
상영장소 : 무주산골영화관 태권관
무주예체문화관 대공연장
무주 전통문화의 집

락樂
SHOUTING CINEMA
초여름의 뜨거운 밤을 즐겨라!
상영장소 : 무주 등나무운동장

숲林
CAMPING CINEMA
영화보고 캠핑도 즐기는 숲 속 영화관!
상영장소 :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內 대집회장

길路
TOWN CINEMA
우리 동네에 극장이 생겼어요!
상영장소 : 무주 반딧불시장 內 원형광장
안성면 두문마을

개막작 Opening Film

2016 필름 판소리, **춘향뎐**

총연출 : 김태용 | 음악감독 : 손성제 | 소리 : 이소연 | 107분

06.02(목) 20:00 I 무주 등나무운동장

개막작 선정의 변

무주산골영화제는 지난 3년 동안 과거 영화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공연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보여 무주를 찾은 많은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왔다. 한국영상자료원과 공동으로 진행했던 1회 개막작 <청춘의 십자로>(총연출:김태용)와 2회 개막작 <이국정원>(총연출: 전계수)이 한국 고전 영화를 변사, 라이브 연주, 라이브 더빙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켰다면, 3회 개막작 <어느 여름밤의 꿈, 찰리 채플린>(총연출: 김종관)은 무성영화의 거장 찰리 채플린의 영화와 그가 탄생시킨 '리틀 트램프'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 연극과 라이브 연주, 그리고 채플린의 영화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찰리 채플린의 영화세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명했다.

4회를 맞이하는 무주산골영화제는 올해에도 지난 3년간 유지해 온 개막작의 취지를 살려 무주를 찾은 관객에게 특별하고 색다른 영화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다시 한국영상자료원과 함께 개막작을 선보인다. 올해의 개막작은 신상옥 감독이 연출하고 최은희, 김진규 등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한 1961년 영화 <성춘향>(1961년)을 영화와 판소리, 라이브 연주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연으로 재탄생시킨 <2016 필름 판소리, 춘향뎐>이다. <가족의 탄생>(2006)과 <만추>(2010)를 연출한 김태용 감독이 총연출을 맡아 완성될 <2016 필름 판소리, 춘향뎐>은 신상옥 감독의 <성춘향>을 원본으로 하여 원본 영화의 이미지와 사운드에 젊은 소리꾼의 소리 그리고 새로운 음악을 더해 진정한 의미의 크로스오버 공연으로 재창조되어 무주를 찾은 관객과 만나게 될 것이다.

1961년 신상옥 감독의 손에 의해 당대 최고의 흥행작 <성춘향>으로 재탄생되었던 한국 고전 문학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소설인 작자 미상의 '춘향전'이, 그로부터 55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 한국을 대표하는 김태용 감독의 손에 의해 다시 한 번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고 있다. 2016년 6월 2일,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운동장 중 하나인 무주의 등나무 운동장에서 펼쳐질 '55년 전 춘향이 와의 다시 없을 특별한 만남'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공동주최 : 한국영상자료원)

Opening Film

총연출 & 음악감독 소개

총연출 김태용

1999년 민규동 감독과 공동 연출한 영화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로 데뷔했으며, 2006년에 연출한 두 번째 장편영화 <가족의 탄생>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한국영화사의 걸작 중 하나인 이만희 감독의 <만추>를 리메이크하며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의 주목받는 감독으로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아시아와 한국의 3D 옴니버스 프로젝트와 단편영화를 연출한 바 있다. 그리고 제1회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작 <청춘의 십자로>의 총연출을 맡았으며, 제3회 무주산골영화제 한국장편경쟁부문에 심사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연출의 변 (김태용)

"판소리로 전승된 춘향전의 이야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감독님들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현존하는 춘향전 영화 중 가장 오래된 1961년 신상옥 감독님의 작품을 다시 무대 위에서 판소리 공연으로 만들어 보려 합니다. 춘향전이 영화가 되고 판소리가 되고 음악이 되는 마술 같은 순간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리 이소연

2010년부터 국립창극단 객원 멤버로 활동하다가 2013년부터 국립창극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소연은 중요무형문화제 제5호 판소리 적벽가 이수자로 판소리의 대가 송순섭, 안숙선, 정회석으로부터 사사받은 실력파 배우다. 그동안 '코카서스의 백묵원', '변강쇠 점찍고 옹녀', '숙영낭자전', '서편제 배비장전', '청', '춘향' 등 수많은 창극무대에 섰으며, 2015년에는 그녀의 첫 뮤지컬 '아리랑'에서 소리꾼 차옥비 역을 맡아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음악감독 손성제

뉴욕의 재즈 명문 퀸즈 칼리지 대학원에서 한국인 최초로 색소폰 석사학위를 취득한 손성제는 국내 컨템포러리 및 비밥 연주의 최고 색소포니스트로 손꼽힌다. 자신의 음반에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색소폰을 비롯해 플루트, 멜로디언 연주와 프로듀싱은 물론 작곡까지 소화하는 전천후 뮤지션으로, 최근에는 37년 만에 가수로 컴백한 정미조의 새 앨범 <37년>을 프로듀싱했다. 김태용 감독이 연출한 영화 <만추>에서 탕웨이가 직접 부른 주제가는 손성제가 작곡한 '멀리서'를 편곡한 노래이며, 최신 단편영화 <그녀의 전설>에서 탕웨이가 직접 부른 엔딩송 '꿈속의 사랑' 역시 손성제의 편곡을 거쳐 탄생했다.

개막 영화 Opening Film

성춘향
Seong Chun-hyang

한국 | 1961년 | 107분 | Color | 드라마
감독 신상옥
출연 최은희, 김진규, 도금봉, 허장강, 이예춘, 한은진, 서월영, 임예심 외

시놉시스 남원 사또 자제 이 도령(김진규)은 단옷날 광한루로 나왔다가 그네를 타는 춘향(최은희)을 본다. 하인 방자(허장강)에게 춘향을 데려오라 하나, 어미는 기생이지만 아비는 참판이고, 기생 짓은 마다하고 글 읽기와 서화에 골몰하는 콧대 높은 춘향은 호감을 감추고 남의 집 처자를 오라 가라 한다며 거절한다. 어느 밤 춘향의 집에 찾아온 이 도령은 춘향 어미 월매(한은진)에게 춘향을 아내 삼기로 맹세한 후 첫날밤을 치른다. 행복한 신혼 생활을 하던 중, 이 도령은 한양으로 부임하게 된 아버지를 따라가야 할 처지가 된다. 함께 한양 갈 꿈에 부풀은 춘향이지만, 기생집에 출입한다고 부친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은 이 도령은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한양으로 떠나는데...

영화에 대하여 한국 최초의 칼라 시네마스코프 영화인 신상옥 감독의 1961년작 <성춘향>은 당시 공교롭게 홍성기 감독의 <춘향전>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이 진행되면서 흥행감독 홍성기와 신진감독 신상옥의 대결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홍성기 감독의 부인인 김지미와 신상옥 감독의 부인인 최은희가 각자 남편의 영화에서 '춘향' 역을 맡게 되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다. 두 감독이 자존심을 걸고 벌인 이 세기의 대결은 반년 이상 지속되었지만 결국 <성춘향>이 서울 개봉 74일 만에 당시 최고 흥행기록인 38만 명을 동원하며 신상옥 감독의 승리로 끝이 났다.

about SHIN Sang-ok

감독 신상옥

일본에서 회화를 전공하다가 1945년 귀국하여, 고려영화사에 입사해 최인규의 조감독으로 영화인생을 시작했다. 1950년대 기업형 영화제작사로 평가받는 '신상옥프러덕션'을 설립하고, 한국 전쟁 중 부산에서 첫 연출 작품 <악야>(1952)를 만들었다. 1953년 당대 최고의 스타 여배우였던 최은희와 결혼했으며, 1961년 <성춘향>의 대성공으로 한국 최고의 겸독 겸 제작자로서 위상을 확립해갔다. <로맨스 빠빠>(1960),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1961), <빨간마후라>(1964)등 무수한 히트 작품이 있다. 2004년,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그린 그의 75번째 작품 <겨울 이야기>를 연출했으나 극장에 걸리지는 못했다. 이후, 간이식 수술과 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건강이 악화돼 2006년 4월 11일 별세했다.

역대 무주산골영화제 개막 공연

1회 무주산골영화제

2회 무주산골영화제

3회 무주산골영화제

3회 무주산골영화제

시상식 & 폐막작
Award Ceremony & Closing Film

06.06(월) 11:30 | 산골영화관 반디관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인 '창' 섹션의 뉴비전상(대상)과 건지상(감독상) 수상작 중 한 편을 폐막작으로 상영한다.

창窓

경쟁부문

Window of Cinema

올해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인 '창' 섹션은 **2015년 8월 1일 이후 제작 완료되었거나 국내외 영화제에서 첫 공개, 또는 극장 개봉한 한국영화 중에서 우리가 사는 다채로운 세상을 개성적이고 차별화된 시선으로 포착하여 한국영화의 지평을 넓힌 동시대 한국영화들 중 10편**을 선정했다. 상영작 구성을 살펴보면 **극영화 8편, 다큐멘터리 2편**이며, **장편 데뷔작 3편, 두 번째 연출작이 7편**이다. 특히 올해에는 **2편의 극영화가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된다.

올해 상영작 10편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제1회 무주산골영화제의 뉴비전상을 공동으로 수상했던 김이창 감독과 강석필 감독의 귀환이다. 데뷔작 <수련>으로 제1회 무주산골영화제에서 첫 공개와 동시에 뉴비전상을 수상한 후 같은 해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김이창 감독은 극영화 **<어린이 정경>**(월드 프리미어)으로, 성미산 개발에 맞선 마을 공동체의 5년간의 투쟁 과정을 담은 데뷔 다큐멘터리 <춤추는 숲>을 연출한 강석필 감독은 성미산 마을 공동체에서 자란 두 청년의 7년간의 성장 과정을 담은 두 번째 다큐멘터리 **<소년, 달리다>**와 함께 무주산골영화제에 귀환한다.

그리고 <소년, 달리다>와 함께 또 한 편의 주목할 만한 다큐멘터리가 상영되는데, 한국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없었던 개성있는 스타일로 한국의 교육 문제를 담아낸 최우영 감독의 두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 **<공부의 나라>**가 그 주인공이다.

올해에는 감독의 연출력과 영화적 야심이 돋보이는 3편의 장편데뷔작이 상영되는데, 최근에 공개되었던 장편독립극영화 중 가장 안정적인 연출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진황 감독의 데뷔작 **<양치기들>**과 자신만의 독특한 리듬과 개성있는 유머감각으로 무장한 고봉수 감독의 데뷔작 **<델타 보이즈>**가 상영된다. 마지막으로, 김이창 감독의 두 번째 장편영화 <어린이 정경>과 함께 또 한편 데뷔작이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되는데, 그 주인공은 2009년 베니스 영화제와 2010년 로테르담 영화제에 초청되었던 단편 <엄마의 휴가>를 연출한 김광복 감독의 인상적인 장편 데뷔작 **<사월의 끝>**이다.

또한 <어린이 정경>과 <소년, 달리다>를 포함한 총 7편의 두 번째 연출작이 상영된다. 먼저 작년 하반기에 첫 공개된 한국장편독립영화 중 강렬한 스타일과 뚝심있는 연출력이 돋보이는 2편의 한국독립영화 - 인상적인 데뷔작 <들꽃>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박석영 감독의 두 번째 영화 **<스틸 플라워>**와 장편데뷔작 <물고기>로 3D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박홍민 감독의 **<혼자>**가 상영된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에 공개되는 신작 장편독립영화 중 가장 주목할 만한 2편의 영화 - <조금만 더 가까이>로 장편 데뷔했던 김종관 감독이 자신의 개성을 더욱 강렬하게 드러낸 두 번째 장편영화 **<최악의 여자>**와 뚝심있는 연출력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 최정민 감독의 두 번째 장편영화 **<프레스>**가 상영된다.

올해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에서 상영될 개성 있는 스타일과 높은 완성도로 무장한 10편의 영화는 최신 한국독립영화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최우영, 스티븐 두트
CHOI Woo-young, Steven DHOEDT

한국, 벨기에 I 2015 I 90분 I 다큐멘터리
Color I 12세이상관람가

06.05(일) 11:00 I 산골영화관 반디관

관객과의 대화★

공부의 나라
Reach For The SKY

줄거리

한국의 아이비리그라 불리는 스카이(S.K.Y.) 대학 입학을 목표로 치열하게 공부하는 고3학생들과 재수생의 대학 입학여정을 1년간 관찰하며, 수험생, 학부모, 선생님, 교육전문가들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꿈'과 '입시'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칠전팔기(七顚八起) 입시 관찰 다큐멘터리'다. 수험생과 학부모, 공교육의 장 학교와 사교육의 장 학원 시장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교육을 통해 한국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10년간 TV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최우영 감독의 두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다.

감독_최우영, 스티븐 두트

최우영은 프리랜서 감독으로서 10년간 TV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2007년 <영혼의 퍼포먼스 굿>을 시작으로, 2008년 KBS 수요기획 <전설의 대물 돗돔을 찾아서>라는 르포형 다큐멘터리를 연출하여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2009년 <삼동초등학교 180일간의 기록>을 통해 교육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13년 첫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데뷔작 <내일도 꽃, 엉클조>를 연출했으며, <공부의 나라>는 그의 두 번째 연출작이다. **스티븐 두트**는 벨기에에서 오디오비주얼 아트로 석사 학위를 받고, 홍콩에서 프리랜서 프로듀서이자 감독으로 활동했다. 그는 4명의 한국 게이머들을 다룬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STATE OF PLAY>를 연출한 바 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의 게이머 양성 과정 및 교육 현장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공부의 나라>를 연출하게 되었다.

영화에 대하여

올해 경쟁부문에 초청된 강석필 감독의 <소년, 달리다>가 카메라와 대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두 아이의 성장 과정을 주관적 시점에서 담아낸 다큐멘터리라면, 관찰자적 시점을 통해 한국의 입시 현실을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공부의 나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한국의 교육 현실에 접근한 다큐멘터리다. <공부의 나라>는 최고의 수능입시영어강사, 고3 수험생, 재수생, 기숙학원 재수생, 이렇게 4명의 인물이 수능을 준비하고, 치르고, 그 결과를 받아드는 입시의 모든 과정을 담아낸다. 이와 함께 이 4명의 인물을 통해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력은 바꿀 수 없다"는 믿음 속에서 진짜 교육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공교육의 현장과 이로 인해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된 사교육의 현실,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학생과 부모들의 모습을 생생하면서도 '낯설게' 담아낸다. 사실 이런 현실이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사람을 키워야 하는 교육 현장이 오직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원으로 변질된 교육 현실 속에서 이미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의 나라>가 한국의 교육 문제를 다룬 기존의 수많은 다큐멘터리와는 전혀 다르게 '낯설게' 다가오는 것은 한국 입시 현실을 직접 경험한 한국 감독과 한국만의 독특한 입시 현실에 관심을 갖게 된 벨기에 출신의 외국 감독 - 완전히 서로 다른 시선을 가진 두 감독의 협업과 그들이 고민 끝에 선택한 영화의 시선과 스타일 때문이다. 최우영 감독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 흥미로운 시도는 최근 치열하게 새로운 화법을 탐구하고 있는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들에 의해 확장되고 있는 한국 다큐멘터리의 지형 속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으로 기록될 것이다.

고봉수
KO Bong-soo

한국 I 2016 I 126분 I 극영화 I Color I 15세이상관람가

06.04(토) 16:30 I 산골영화관 반디관

관객과의 대화★

델타 보이즈
Delta Boys

줄거리

매형의 허름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일록에게 미국에서 살던 허세 넘치는 친구 예건이 찾아온다. 한국에서 먹고 살 방법을 궁리하던 예건은 어느 날, 구청에서 주최하는 남성 4중창 대회 포스터를 들고 와서 자신이 노래 전문가라며 대회에 참가해 보자고 이야기한다. 농담으로 던진 예건의 제안에 마음이 움직인 일록은 중창단 모집 공고문을 동네 여기저기 붙인다. 다음 날 이 공고문을 보고 시장 생선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대용이 찾아온다. 대용은 4중창단을 구성하기 위해 트럭에서 장사를 하는 동생 준세를 합류시킨다. 도대체 제대로 노래를 할 수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4중창단 '델타 보이즈'가 결성되고 그들은 본격적으로 대회 참가를 준비한다.

감독_고봉수

단편영화 <A Cup of Coffee>(2006)는 시카고 노스웨스턴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하였으며 레드 뱅크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또한 2015년에 연출한 단편 <G4>는 인디포럼에 소개되었다. <델타 보이즈>는 독특한 리듬과 개성 있는 유머 감각이 돋보이는 고봉수 감독의 데뷔작이다.

영화에 대하여

올해 상반기 첫 공개된 영화 중 가장 개성 있는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 중 한 편인 고봉수 감독의 데뷔작 <델타 보이즈>는 우여곡절 많은 젊은이들의 고군분투를 유쾌하게 담아낸 블랙 코미디다. 사회의 밑바닥에서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조차 쉽지 않은 네 명의 남자들이 있다. 구청이 주최한 작은 4중창단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모인 이 네 명의 남자들은 노래 연습보다 함께 모여 수다를 떨고, 식사를 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을 작은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잘 하지도 못하는 노래 연습에 굳이 매달린다. 빠듯한 현실 속에서 숨 쉴 곳, 마음 둘 곳이 없는 이들에게 노래 연습이란 잃어버린 열정을 쏟아 부을 유일한 탈출구이자 해방구인 것이다. 영화는 이렇게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네 명의 인물들이 노래 연습을 매개로 서로 연대하고, 이 서글픈 연대 속에서 대회 참가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각자의 삶의 의미와 열정의 의미를 발견해 가는 모습을 유쾌하게 담아낸다. "남성들이여, 위대한 꿈을 향해 노래하라"라는 포스터의 표어로 시작된 이 영화가 결국 '웃픈' 결말로 마무리 되고 크레딧과 함께 박수소리가 흘러나올 때 피식거리는 웃음과 함께 가슴 한쪽이 아려오는 감정을 선사하는 이 영화의 힘은 개성 넘치는 네 배우 - 백승환, 신민재, 김충길, 이웅빈의 자연스러운 연기와 이들의 연기를 조율하여 자신만의 리듬과 유머를 창조해낸 고봉수 감독의 연출력에 기인한다. 영화 <스물>을 통해 상업영화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이병헌 감독의 단편영화와 독립장편데뷔작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또 다른 감각의 코미디 영화를 만들어낸 고봉수 감독의 차기작이 기대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김광복
KIM Kwang-bok

한국 I 2016 I 120분 I 극영화 I Color I 청소년관람불가

06.04(토) 13:30 I 산골영화관 반디관

관객과의 대화★

World Premiere

사월의 끝
The End of April

줄거리

어느 소도시 낡은 아파트로 이사 온 현진. 이사 온 날부터 옆집에서 시비를 걸어오고,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서 옆집을 경계한다. 어느 날, 옆집의 지숙은 현진에게 딸 과외를 부탁하고, 이를 계기로 지숙의 딸 주희와 현진은 친해진다. 아파트를 방문한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박주무관. 아파트 복도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동네 청년 형구를 보고 시비가 붙는다. 형구 모는 박주무관이 아들을 겁박했다며 민원을 넣어 그녀를 곤경에 빠뜨린다. 어느 날, 형구와 그의 모가 잔혹하게 살해당한 소식을 들은 박주무관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한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고 아파트로 향한다.

감독_김광복

전남 장성 출생.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파리8대학교 영화학과 및 동 대학원에서 영화연출을 전공하였다. 2005년 <아빠의 휴가>로 2006년 로테르담국제영화제 단편경쟁부분 초청되었고, 2009년 <엄마의 휴가>로 베니스국제영화제 단편경쟁부분에 초청되었다. 2015년 전주영상위원회 전북영화제작 인큐베이션 사업으로 선정 된 <사월의 끝>은 김광복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된다.

영화에 대하여

<사월의 끝>은 어느 허름한 아파트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제 막 이사 온 공무원 시험 준비생 현진, 옆집 고등학생 딸 주희, 주민 센터 사회 복지 담당 박 주무관의 이야기다. 현진은 이사 온 직후부터 이상하고 기묘한 일들을 겪는다. 현진이 겪게 되는 이상한 일들은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에 있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현진이 거주하는 낡은 아파트는 현실과 판타지가 뒤섞인 공포의 공간이 되어 간다. 현진이 구축한 이 세계에는 현진의 과거와 현재가 집약되어 있다. 현진이 꿈꾸는 현진은 자신이 구축한 이 기묘한 세계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현진이 구축한 이 세계가 해체되는 과정은 현진의 비밀이 드러나고 결국 현진이 진실과 대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월의 끝>은 한정된 공간과 잘 구축된 긴장감 속에서 현진을 중심으로 주희와 박주무관으로 이어지는 인물 간의 관계와 비밀을 밝혀가는 공포 영화이기도 하지만, 현진이 구축한 공간에서 현실과 판타지를 오가며 현진의 심리를 따라가는 판타지 심리 스릴러 영화이기도 하다. 두 편의 단편영화로 각각 로테르담국제영화제와 베니스국제영화제 단편경쟁부문에 초청받은 바 있는 김광복 감독의 데뷔작 <사월의 끝>은 공포영화의 장르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스릴러와 미스터리 영화의 장르적 요소들을 결합시키고 현실과 판타지를 뒤섞어 복잡한 영화의 구조를 매끄럽게 풀어내고 있다. 또한 세 인물의 이야기를 서로 교차/진행 시키면서 직조한 정교한 플롯을 바탕으로 각 인물들의 관계와 그들이 가진 비밀을 긴장감 넘치게 담아내고 있다. 장르 영화에 대한 감독의 고민과 영화적 야심이 돋보이는 이 영화는 좋은 장르 영화를 찾기 어려운 한국 장르 영화의 영토 위에서 나온 소중한 결과물이자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만 하다.

강석필
KANG Seok-pil

한국 I 2015 I 104분 I 다큐멘터리 I Color I 12세이상관람가

06.04(토) 11:00 I 산골영화관 반디관

관객과의 대화★

소년, 달리다
Boys Run

줄거리
마을에서 함께 자란 친구 민수와 상호가 17살의 소년에서 23살의 청년이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소년들이 자란 곳은 바로 성미산마을 공동체다. <소년, 달리다>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배우고 가르치며 사는가를 소년들을 중심으로 담아낸다. 이와 함께 소년들이 성장하는 모습 뿐 만 아니라 마을사람들과 아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성미산 공동체의 모습을 담는다. 아이들과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면서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 어른들이 부모가 되어간다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다.

감독_강석필

서울영상집단에서 <변방에서 중심으로>(1997), <경계도시1>(2002), <경계도시2>(2009) 등에서 프로듀서와 촬영감독으로 일했다. 이후 <춤추는 숲>(2012)의 감독으로 데뷔했으며, 2013년 제1회 무주산골영화제 뉴비전상을 공동 수상하기도 하였다. 2015년 성미산 마을에서 자란 두 소년과 마을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다큐멘터리 <소년, 달리다>로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 비프 메세나상을 수상하였고, 2015년 제41회 서울독립영화제와 2016년 제16회 인디다큐페스티벌에 초청 상영되었다.

영화에 대하여
데뷔작 <춤추는 숲>을 통해 성미산 개발에 맞선 성미산 마을 공동체의 싸움을 담아냈던 강석필 감독이 이번엔 성미산 마을 공동체에서 자라난 두 아이의 성장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다. 마을에서 함께 자란 두 소년의 7년간의 성장이 고스란히 담긴 <소년, 달리다>에서 가장 주목하게 되는 것은 감독이든 카메라와 대상이 된 아이들의 관계다. 오랫동안 마을에서 두 아이의 성장을 지켜본 감독과 감독을 '맥가이버'라고 부르는 아이들은 서로를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다. 그래서 감독이 들고 있는 카메라의 시선은 부모의 시선처럼 시종일관 따뜻하고, 화면 밖의 감독이 화면 속 아이들에게 스스럼없이 던지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인생 선배이자 친구가 던지는 그것과 같다. 이렇게 신뢰하는 카메라 앞에 선 아이들은 내밀한 감정과 속마음을 가감 없이 털어 놓는다. 그러나 이 다큐멘터리가 보여주는 아이들의 판단과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교육 방식과 이런 부모들의 신념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은 입시 중심의 교육 현실과 정반대에 있다. 그래서 영화 속 아이들과 부모들의 모습은 때론 낯설어 보이고, 때론 저런 교육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내부자들이 옳다고 믿는 것이 그대로 보여질 때 발생하는 이 예기치 못한 효과는 이 다큐멘터리의 주제를 확장시킨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에는 정답이란 없다. 그러므로 대화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 두 소년의 아름다운 성장담인 <소년, 달리다>가 이룬 성취는 신뢰의 카메라가 긴 시간에 걸쳐 담아낸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 아니라, 입시 중심의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일 것이다.

박석영
PARK Suk-young

한국 | 2015 | 83분 | 극영화 | Color I15세이상관람가

06.03(금) 13:30 I 산골영화관 반디관

관객과의 대화★

스틸 플라워
Steel Flower

줄거리
집 없는 소녀 하담은 빈집을 떠돌며 살아간다. 추운 겨울 그녀는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직장을 구하러 간다. 그러나 전화기도 주소도 불분명한 그녀에게 직장을 구하는 일은 만만치 않다. 게다가 어른들은 그녀를 이용하려고만 할 뿐이다. 직장 면접에서 쫓겨나고 쉴 곳으로 돌아오는 그녀에게 갑자기 탭댄스 소리가 들린다. 탭의 리듬은 그녀의 마음을 마법처럼 사로잡고 그날 이후 하담은 거리에서 혼자 탭댄스를 연습하며 조금씩 행복해진다. 그러나 냉혹한 현실은 성난 파도처럼 그녀에게 닥쳐든다.

감독_박석영

박석영 감독은 2014년 장편영화 <들꽃>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여, 2015년 제9회 프랑스의 모베장르영화제와 스위스의 제25회 블랙무비-제네바국제독립영화제, 2014년 제40회 서울독립영화제 등에서 초청상영 진행되었다. <스틸 플라워>는 감독의 두 번째 장편영화로 2015년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비전 부문에서 상영되었고, 제41회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대상, 독립스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영화에 대하여
강렬한 데뷔작 <들꽃>을 통해 사회에서 버려진 세 가출 소녀의 절망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담아낸 박석영 감독의 두 번째 연출작이며, 작년 하반기에 첫 공개된 영화 중 단연 돋보이는 영화 중 한 편이다. 서둘러 캐리어에 짐을 챙겨 길을 나선 하담이 도착한 곳은 부산의 어느 바다다. 눈앞에 펼쳐진 회색빛의 거친 바다는 하담이 맞닥뜨려야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하담의 고독한 생존기가 시작된다. 돈이 필요한 하담은 안정된 거처도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는다. 그러나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도, 간신히 마음을 열어도 결국 돌아오는 건 어른들의 배신과 폭력뿐이다. <스틸 플라워> 속 대한민국은 지옥이고, 하담에겐 더욱 그렇다. 이 지옥 속에서 하담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도 믿지 않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자신을 이용하려는 어른과 맞서는 방법뿐이다. 영화는 하담의 이런 피곤하고 고단한 삶의 여정을 바짝 뒤쫓는다. 그런데 이런 하담에게도 유일한 즐거움이 하나 있다. 바로 부산에 도착해서 알게 된 탭댄스다. 하담은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펼쳐진 아스팔트와 보도블록 위에서 따각따각 탭댄스를 출 때야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고, 미소 지을 수 있다. 시종일관 하담에게 밀착되어 있던 카메라도 하담이 탭댄스를 추는 시간만큼은 한 발 물러난다. 영화의 이미지는 이렇게 하담의 감정을 세밀하게 담아내며 차곡차곡 쌓여간다. 간결한 서사, 강렬한 이미지, 주연을 맡은 배우 정하담이 발산하는 펄떡거리는 에너지는 박석영 감독의 재능을 통해 수렴되고, 세상에서 버려진 한 소녀의 깊은 슬픔과 자신을 버린 세상에 당당히 맞서려는 강한 의지는 온전한 모습으로 영화 속에 담긴다. 눈이 아프도록 슬프고,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영화다.

김진황
KIM Jin-hwang

한국 I 2015 I 80분 I 극영화 I Color I 15세이상관람가

06.03(금) 11:00 I 산골영화관 반디관

관객과의 대화★

양치기들
The Boys Who Cried Wolf

줄거리

한때 주목받는 배우였으나, 지금은 역할대행업을 하며 간신히 생계유지를 하는 완주에게 살인사건의 목격자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온다. 망설이던 완주는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해 그 역할을 수행한다. 완벽하게 목격자 역할을 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았지만, 무고한 청년이 살인자로 몰리게 됨을 알게 된다. 완주는 사건을 되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건 양치기들이다. 나 하나 편하자고 진실을 외면하는 그런 양치기들 말이다.

감독_김진황

김진황 감독은 서울 출생,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를 거쳐,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연출을 전공하였다. 감독은 2012년 단편 <보편적 순간>을 시작으로 여러 편의 단편영화를 제작하였고, <양치기들>은 한국영화아카데미 장편제작연구과정 작품이자 김진황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 비전 부문에서 상영되어 한국영화 감독조합상을 수상했으며, 올해 4월에 열린 제6회 북경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었다.

영화에 대하여

완주는 연극배우였다. 그러나 오디션에서 떨어진 후 지금은 친구의 심부름센터에서 역할 대행업을 하며 살고 있다. 어느 날, 그는 살인 사건의 목격자로서 거짓 진술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는다. 어머니의 병원비로 곤란한 상태였던 그는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경찰을 찾아가 거짓 진술한다. 그러나 이후 자신의 거짓 진술로 인해 엉뚱한 사람이 살인자로 처벌 받을 상황에 처한 걸 알게 되고 자신의 거짓말을 되돌리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 김진황 감독의 데뷔작 <양치기들>에는 거짓말을 하는 수많은 '양치기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곤란한 상황에 엮이지 않기 위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양치기들'이 되고 이 '양치기들'은 서로 충돌하면서 사건을 만들어내고 영화를 진행시킨다. 주인공 완주는 '양치기들'로 가득한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양치기'가 되는 걸 선택했지만 스스로 '양치기'가 되는 걸 거부하는 유일한 인물이고, 그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염치'다. '염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양치기들>은 거짓말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양치기들'에 대한 영화가 아니라 '양치기들'이 '염치'의 의미를 깨닫고 변화해 가는 일종의 성장영화라고 할 수 있다. 데뷔작임에도 불구하고 스릴러 장르의 구조 속에서 완주라는 인물을 통해 복잡한 사건을 긴장감 있게 풀어낸 김진황 감독의 안정된 연출력은 최근 공개된 영화들 중에서 단연 돋보인다. 특히 주연배우의 연기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 영화의 중심에는 최근 많은 독립영화에 출연하며 주목받고 있는 배우 박종환이 있다. 그는 개성 있고 안정된 연기를 선보이며, 김진황 감독이 짜놓은 판 위에서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선보인다.

김이창
KIM Lee-chang

한국 I 2016 I 94분 I 극영화 I Color I 12세이상관람가

06.05(일) 13:30 I 산골영화관 반디관

관객과의 대화★

World Premiere

어린이 정경
Scenes from Childhood

줄거리

여기 이곳에 다양한 마음의 병으로 고통 받는 여섯 사람이 있다. 각자 자신의 상황을 위로받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사람들. 이 공간은 치유의 공간이고, 마음의 장벽이 허물어진 공간이다. 하지만 공간의 의미는 누군가 만들어놓은 표적인 의미일 뿐, 여섯 사람의 여린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의도치 않은 말과 행동들이 여린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이곳에 모인 여섯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감독_김이창

인천전문대 무도학과를 거쳐 경희대학교 언론정보 대학원을 졸업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고 싶었던 김이창 감독은 5년간 제작한 셀프 다큐멘터리 <수련>을 통해 2013년 제1회 무주산골영화제에서 뉴비전상을 수상하였다. <어린이 정경>은 김이창 감독의 두 번째 장편영화로 슈만의 소품집 "어린이 정경"이 전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음악에 따라 전개되는 이야기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다. <어린이 정경>은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된다.

영화에 대하여

데뷔작 <수련>을 통해 다큐멘터리와 극영화의 경계에서 자전적 이야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냈던 김이창 감독의 두 번째 영화이자 첫 번째 극영화다. 절망 속에서 좀처럼 희망을 찾지 못하던 <수련> 속의 그가 첫 번째 극영화의 소재로 선택한 것은 집단 심리 치료 현장이다. 영화는 자신만의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섯 명의 인물이 참여한 심리 치료 과정과 이후 뒷풀이의 모습을 교차로 담아낸다. 치료 과정을 통해 이미 서로의 문제점을 알고 있던 그들이지만 술자리가 계속되면서 사회에서 받은 상처를 서로에게 고스란히 다시 돌려준다.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이야기를 흥미롭게 만드는 건 형식이다. 이 영화의 제목이자 슈만의 피아노 소품집의 이름이기도 한 '어린이 정경'은 이 영화를 구성하는 바탕이 된다. 감독은 각각의 제목이 달린 13곡의 짧은 피아노곡으로 이루어진 슈만의 이 소품집을 영화 음악으로 활용하는 한편, 13개의 제목에서 5개를 추려내어 영화와 결합시킨다. 그리고 몇 가지 영화적 장치들을 활용하여 영화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누구나 자신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자신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바꾸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이다. 그러므로 심리 치료에 참여한 여섯 참가자의 모습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결국 이 영화는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의 증거인 동시에 감독이 끊임없이 찾아온 희망의 증거가 된다.

김종관
KIM Jong-kwan

한국 I 2016 I 94분 I 극영화 I Color I 15세이상관람가

06.03(금) 16:00 I 산골영화관 반디관

관객과의 대화★

최악의 여자
Worst Woman

줄거리
소설 속 인물을 궁지에 몰아 비극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작가 료헤이는 소설 출간 기념회에 맞춰 서울에 오게 된다. 서울에 온 날 그는 자신의 소설처럼 곤경에 처한 여자, 은희를 만나게 된다. 관계를 통해 인물의 감수성을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영화다. 최근 한국에서 주목 받고 있는 배우 한예리와 권율 그리고 <한여름의 판타지아>에서 좋은 연기를 선보였던 일본 배우 이와세 료가 출연한다.

감독_김종관

김종관 감독은 2004년 <폴라로이드 작동법>과 2005년의 <낙원>, 2014년<아카이브의 유령들> 등 다수의 단편영화를 만들었으며, 국내외 많은 영화제에서 상영 및 수상했다. 2008년 <연인들>이라는 타이틀로 개인의 단편을 모아 최초이자, 정식으로 개봉하였다. <최악의 여자>는 2010년 옴니버스 장편 데뷔작 <조금만 더 가까이> 이후 연출한 김종관 감독의 두 번째 장편 극영화다.

영화에 대하여
<최악의 여자>는 멜로영화의 자장 안에서 남녀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과 욕망에 주목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온 김종관 감독의 두 번째 연출작이다. 영화는 기본적으로 작가 료헤이와 무명배우 은희가 겪는 하루 동안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출판기념회를 겸한 독자와의 만남의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도착해서 겪는 작가 료헤이의 하루 동안의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은희가 양다리를 걸치고 바람을 피우다가 우연한 기회에 두 남자 모두에게 자신의 거짓말을 들키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영화의 도입부에서 들려주는 료헤이의 독백으로 볼 때, 은희는 료헤이가 떠올린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영화는 료헤이와 은희의 이야기를 각각 진행시키면서, 두 번에 걸쳐 교차시킨다. 영화의 초반부와 후반부에 이루어지는 이 두 번의 만남은 <최악의 여자>의 시작과 끝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현실과 판타지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은희가 별 열의 없이 참여하는 연기 레슨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정말로 곤란한 하루를 겪고 난 후 진심으로 연기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오전에 만난 료헤이와 남산에서 우연히 만나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루의 고단함을 털어낼 때, 이 영화는 곧 료헤이, 아니 감독이 들려주는 하루 동안 벌어진 은희의 성장 이야기이자 로드 무비가 된다. 특히 작가 료헤이와 료헤이가 창조한 이야기의 주인공인 은희가 만나 만들어낸 마지막 10분간의 산책과 대화는, 인생과 사랑에 대한 성찰을 두근거리도록 아름답게 담아낸 근래에 찾아보기 힘든 최고의 엔딩이자 오랜 시간 서두르지 않고 단단하게 구축해 온 김종관 월드를 집약한 결정체라고 할 만 한다.

최정민
CHOI Jeong-min

한국 I 2016 I 95분 I 극영화 I Color I 15세이상관람가

06.05(일) 16:30 I 산골영화관 반디관

관객과의 대화★

프레스 : PRESS
PRESS

줄거리
혼자 사는 중년 남자 영일은 프레스 기계를 다루는 공장에 근무한다. 단순하고 반복된 생활을 보내던 그에게 젊은 보라가 찾아온다. 그녀는 그에게 매일 같이 말을 걸고, 그가 삶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영일은 점점 보라에게 의지하게 된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프레스는 압력과 모양 틀로 외부의 변형을 준다. 영일에게 보라는 그런 존재다. 외부의 변형과 내적인 변형을 함께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본질을 찾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

감독_최정민

최정민 감독은 2000년부터 영화사 ㈜필름지 영화제작팀으로 근무했다. 퇴직 후, 독립영화현장 스태프로 일하며, 장·단편 시나리오 작업과 단편영화를 연출했다. 2007년 경남지역으로 활동무대를 옮긴 후, 장편영화제작과 함께 다양한 지역의 영화문화를 기획하고 있다. 2009년 단편 <도시화> 연출로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경쟁부문에 상영되었으며, 2011년 단편 <토막>으로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국제경쟁부문 등에서 상영되었다. 2014년 첫 번째 장편 영화 <길>을 연출하였고, 2016년 <프레스: PRESS>는 최정민 감독의 두 번째 연출작이다

영화에 대하여
감옥에서 막 출소한 중년 남자 영일은 전에 일하던 공장에서 다시 일을 시작한다. 익숙하지만 어색한 시작이다. 새롭게 시작했지만 출소자에게 세상은 그렇게 따뜻할 리 없다. 그저 조용히 직장과 집을 오가는 일상이 반복될 뿐이다. 가끔은 친구를 만나려고 하지만 전과자라는 굴레는 친구마저 허락하지 않는다. 이제 그는 혼자다. 감옥에 가기 전에 사용했던, 하지만 이제는 고장나버린 프레스를 굳이 다시 고치려고 하는 영일의 모습은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리고 싶은 강한 욕망의 표현이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담당자 보라를 알게 된다. 영일은 젊고 예쁜 보라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이제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영일 앞에 나타난 보라는 영일의 구원자와 다름없다. 그러나 영일은 그녀의 친절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이로 인해 보라와의 관계에 균열이 생긴다. 영일의 마음은 집착으로 변질되고, 정리되지 않는 감정으로 인해 영일은 폭주하기 시작한다. <프레스 : PRESS>는 박정범 감독의 데뷔작 <무산일기>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었던 배우 진용욱의 섬세한 감정 연기를 통해 이제 출소한 한 전과자의 삶, 그리고 그의 욕망과 사랑의 감정을 묵묵하고 정직하게 담아낸다. 인물 간의 충돌과 변화하는 감정들을 잘 아우르면서 서두르지 않고 한발 한발 서사를 전진시키는, 화려하지 않지만 뚝심 있는 최정민 감독의 연출력은 화려한 캐스팅과 복잡한 이야기 구조, 다양한 영화적 장치들을 적극 활용하는 최근 독립영화들의 경향 속에서 더욱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박홍민
PARK Hong-min

한국 I 2015 I 90분 I 극영화 I Color I 15세이상관람가

06.04(토) 19:30 I 산골영화관 반디관

관객과의 대화★

혼자
Alone

줄거리

수민은 작업실 건너편 재개발 지역을 배경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준비 중이다. 작업실 옥상에서 건너편 동네를 찍고 있던 수민은 결박당한 여자가 복면남들에게 살해당하는 현장사진을 찍는다. 작업실로 도망치지만 복면남들에게 카메라를 뺏기고 망치로 머리를 맞아 죽임을 당한다. 눈을 뜬 수민은 골목 정자에 발가벗겨진 채 누워 있음을 깨닫고, 모든 게 꿈이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작업실을 가기 위해 골목을 내려오다가 복면남을 만나고 다시 도망간다. 하지만 결국 복면남에게 죽임을 당하는 수민, 끊임없이 골목으로 돌아가고, 복면남을 만나고, 죽임을 당한다.

감독_박홍민

박홍민 감독은 2008년 단편 〈가위바위보〉를 통해 제28회 러시아부기고영화제 경쟁부문 국제이미지페스티벌에 초청되었다. 그리고 2010년 첫 번째 연출한 장편영화 〈물고기〉는 2011년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 비전부분 시민평론가-레드 파인트리상을 수상하였고, 2012년 제41회 로테르담국제영화제 타이거 어워드 경쟁 등에 초청 되었다. 〈혼자〉는 장편데뷔작 〈물고기〉로 3D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박홍민 감독의 두 번째 장편영화다.

영화에 대하여

장편 데뷔작 〈물고기〉로 주목받았던 박홍민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이자 작년 하반기에 첫 공개된 영화 중 〈스틸 플라워〉와 함께 가장 확고하고 개성 있는 연출 스타일을 보여주는 영화인 〈혼자〉는 가정 폭력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수민의 벗어날 수 없는 악몽에 대한 이야기다. 피범벅으로 엉망이 된 방을 치우는 수민의 1인칭 시점으로 시작한 카메라는 1인칭과 3인칭 시점을 오가며 수민의 악몽 속을 유려하게 따라간다. 작업실에서 죽임을 당한 수민은 어느새 마을에서 깨어나고, 그가 마을에서 헤매면서 도망치려고 할 때 마다 다시 마을로 돌아온다. 트라우마를 떨치지 못하는 수민의 복잡한 내면은 미로와 같은 골목을 헤매고 있는 수민의 모습으로 은유되고, 악몽이 지속/반복되면서 수민의 불행한 가정사는 하나씩 정체를 드러낸다.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수민이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이 마을은 영화 속 대사처럼 수민의 뇌와 같다. 영화는 이렇게 수민의 벗어날 수 없는 악몽을 통해 수민의 내면을 탐구한다. 그러나 영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는 수민의 직업, 재개발을 앞둔 공간, 재개발 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에 관한 여자 친구와의 논쟁은 수민의 내적 문제를 외부로 확장시킨다. 그래서 악몽에서 정말 벗어났다고 생각한 순간 다시 악몽의 입구에 서게 된 수민의 모습과 그 모습을 지켜보는 피 흘리는 여자 친구의 모습은 벗어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담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데뷔작 〈물고기〉를 통해 입증된 심리 스릴러 장르를 활용하여 주인공의 심리를 포착하는 박홍민 감독의 대담하고 정교한 연출력은 이 영화를 통해 한층 빛을 발하고 있다.

판場

Picnic Cinema

'판' 섹션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새롭고 독창적인 시선으로 담아내며 이를 통해 영화의 미학적 지평을 넓힌 국내외 영화들을 엄선하여 상영한다. 올해에는 예년에 비해 조금 더 다양한 국가의 영화들을 선보인다. 최신 개봉작을 중심으로 국내 최초 상영작, 국내 영화제 상영작, 개봉 예정 신작, 고전영화 등 총 45편의 국내외 영화가 상영된다. 구성을 보면 해외 영화 30편, 해외 다큐멘터리 6편, 해외 애니메이션이 3편이며 한국영화가 6편이다.

올해 '판' 섹션을 통해 상영되는 **한국 극영화는 총 6편**이다. 먼저 올해 개봉될 한국영화 중 상업영화의 문법 안에서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주는 2편의 한국영화 - 짜임새 있는 구성과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이는 류훈 감독의 데뷔작 **<커튼콜>**과 인물의 감정을 세심하게 포착하는 연출력과 주연을 맡은 전혜빈의 눈부신 연기가 돋보이는 조성은 감독의 데뷔작 **<우리 연애의 이력>**이 상영되며, 이와 함께 최익환, 신연식, 이광국 감독이 참여한 최신 옴니버스 인권영화 **<시선 사이>**가 상영된다. 또한 2014년을 대표하는 회제의 독립영화 **<족구왕>**이 **베리어프리 버전**으로 상영된다. 그리고 2편의 한국고전영화가 상영되는데, 2015년에 한국영상자료원에 의해 발굴되어 공개된 사회비판적 한국 리얼리즘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김수용 감독의 1967년 작 **<만선>**과 1960년대 대표적인 홍보 영화 중 한 편이자 무주 구천동을 배경으로 한 신상옥 감독의 1963년작 **<쌀>**이 상영된다.

또한 **총 6편의 해외 다큐멘터리**가 소개된다. 최신 국내 개봉 해외 다큐멘터리 중 가장 인상적인 다큐멘터리 3편 - 2015년과 2016년 아카데미 최우수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한 화제의 다큐멘터리 **<에이미>**와 **<시티즌포>**, 2014년을 대표하는 최고의 다큐멘터리 중 한 편인 **<침묵의 시선>**이 상영된다. 그리고 국내 미개봉 다큐멘터리 3편을 상영한다. 먼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가수이자 배우였던 커트 코베인과 말론 브란도를 독특한 스타일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최고의 인물 다큐멘터리 **<커트 코베인 : 몽타쥬 오브 헥>**과 **<리슨 투 미 말론>**이 상영되며, 또한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세르게이 로니차 감독이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단 혁명 과정을 엄격한 형식을 통해 담아낸 다큐멘터리 **<마이단>**이 상영된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어린이와 가족관객을 위해 뛰어난 상상력을 자랑하는 3편의 해외 애니메이션이 상영된다. <늑대 아이>를 연출한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최신 애니메이션 **<괴물의 아이>**와 울트라맨 탄생 50주년을 맞이하여 개봉한 **<극장판 울트라맨 우주 몬스터 대결전>** 그리고 <월레스와 그로밋>을 제작한 아드만 스튜디오의 최신 클레이 애니메이션 **<숀 더 쉽>**이 상영된다.

또한 올해에는 **국내 개봉 예정작 6편**이 무주산골영화제에서 상영된다. 먼저 올해 베를린 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작이자 <더 헌트>를 연출한 토마스 빈터베르크 감독의 최신작 **<더 코뮌>**, 올해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 수상작인 미아 한센 로브 감독의 영화 **<다가오는 것들>**, 그리고 아이폰으로 촬영된 2015년 선댄스 영화제 화제작인 숀 베이커 감독의 **<탠저린>**, 2015년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감독상 수상작인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해안가로의 여행>**, 태국에서 천만 관객을 동원한 화제작 **<선생님 일기>**, 드디어 국내 개봉을 확정지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1995년 데뷔작 **<환상의 빛>**이 상영된다.

그리고 **국내 미개봉 해외 극영화 3편**을 선보인다. 먼저 작년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된 영화 <라우더 댄 밤즈>를 연출한 노르웨이 출신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두 번째 장편영화 **<오슬로, 8월 31일>**이 국내 최초로 상영되며, 독일을 대표하는 크리스티안 펫졸트 감독의 숨은 걸작 **<피닉스>**와 국내 영화제를 통해서 소개된 적이 있는 일본 아오야마 신지 감독의 기타규슈 삼부작 중 두 번째 영화이자 2000년 칸영화제 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을 수상했던 영화 **<유레카>**가 상영된다.

마지막으로 작년과 올해 상영되었던 수많은 개봉작 중 엄선된 **총 21편의 개봉작**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먼저 최근 개봉한 해외 극영화 중 동시대 영화 미학의 최전선에서 이른바 거장의 칭호가 이상하지 않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감독 6인의 영화들 - 난니 모레티 감독의 **<나의 어머니>**, 대니 보일 감독의 **<스티브 잡스>**, 필립 가렐 감독의 **<인 더 새도우 오브 우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바닷마을 다이어리>**,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헤이트풀 8>**이 상영되며, 이와 더불어 마가레테 폰 트로타 감독의 **<한나 아렌트>**가 상영된다.

그리고 제작된 지 46년 만에 국내에 개봉하게 된 이탈리아의 거장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이 29세에 연출한 세계영화사의 걸작 **<순응자>**와 이제는 세계영화계의 주목을 받는 감독으로 성장한 스티브 맥퀸 감독의 강렬한 데뷔작으로 제작된 지 8년 만에 국내에 정식으로 개봉한 영화 **<헝거>**가 상영된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에 불어닥친 재개봉 열풍 속에서 다시 개봉하여 주목받은 영화 2편이 상영된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글램 록의 전설 데이비드 보위를 기억하기 위해 토즈 헤인즈 감독의 **<벨벳 골드마인>**이 상영되며, 2008년 개봉 당시 돌풍을 일으키며 많은 젊은 관객으로부터 사랑받았던 토마스 알프레드슨 감독의 **<렛 미 인>**이 상영된다. 마지막으로 동시대 영화의 최전선에서 자신 만의 색깔을 내며 영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11편의 최신 개봉작이 상영된다. 미셸 프랑코 감독의 **<크로닉>**, 이바노 데 마테오 감독의 **<더 디너>**, 존 맥클린 감독의 **<슬로우 웨스트>**, 매그너스 본 혼 감독의 **<히어 애프터>**, 앤드류 헤이그 감독의 **<45년 후>**, 오미보 감독의 **<너는 착한 아이>**, 데이비드 젤너 감독의 **<쿠미코, 더 트레져 헌터>**, 레자 미르카리미 감독의 **<하루>**, 알렉스 가랜드 감독의 **<엑스 마키나>**, 라즐로 네메스 감독의 놀라운 데뷔작 **<사울의 아들>**, 매튜 포터필드 감독의 **<그런날 사이에 어떤날>**이 상영된다.

한국영화 Korean Cinema

만선 Full Ship

김수용 KIM Soo-yong
한국 | 1967 | 84분 | 극영화 | B&W | 15세이상관람가
06.04(토) 11:30 | 산골영화관 태권관

1960년대를 대표하는 사회비판적 한국 리얼리즘의 걸작. 서해안의 작은 섬 용초도에 사는 곰치는 아들 둘을 바다에서 잃었지만 어부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뱃사람이다. 그러나 선주의 밑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 빚만 늘어나고, 곰치와 마을사람들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다. 선주와의 갈등, 섬마을을 떠나고 싶어하는 아들 도삼과의 갈등 속에서 만선을 기대하며 곰치와 마을사람들은 배를 타고 나선다. 2015년 한국영상자료원에 의해 발굴되어, 첫 공개된 김수용 감독의 1967년도 작품이며, 김승호, 주증녀, 박노식, 허장강 등 60년대 활발하게 활동한 배우들을 만나 볼 수 있는 작품이다. (공동주최 : 한국영상자료원)

시선 사이 If You Were Me

최익환, 신연식, 이광국
한국 | 2015 | 95분 | 드라마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06.04(토) 16:30 | 산골영화관 태권관 관객과의 대화★

영화 <시선 사이>는 매력적인 시나리오와 연출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최익환, 신연식, 이광국 세 감독의 단편들을 묶은 최신 인권영화 옴니버스 프로젝트이다. 떡볶이를 먹고 싶어 하다 벌을 받는 학생의 이야기가 담긴 <우리에게 떡볶이 먹을 권리가 있다>와 과대망상에 빠진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과대망상자들> 그리고 이상한 하루를 보내는 보험판매원의 이야기를 담은 <소주와 아이스크림>. 이 세 편의 단편영화들을 통해 이 시대 인간의 권리를 경쾌하게 해부한다.

쌀 Rice

신상옥 SHIN Sang-ok
한국 | 1963 | 124분 | 드라마 | B&W | 12세이상관람가
06.05(일) 11:30 | 무주 전통문화의 집

상이군 차용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인 무주 구천동으로 향한다. 용이의 마을 무주 구천동은 메마른 황무지로 쌀을 구하기 힘들어 마을 사람들이 가난으로 고생하는 곳이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용이는 가난을 벗어나야겠다는 신념을 갖고 바위로 가득한 산에 굴을 뚫어 황무지에 물을 대는 계획을 세운다. 마을 사람들을 모아 지방관청에 찾아가 보조금을 요청하지만 지원은 쉽사리 되지 않고, 굴파기를 동조했던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쓰러지고 용이를 불신하기 시작한다. 전라북도 무주 구천동을 배경으로 한 신상옥 감독의 1963년 작품으로 배우 신영균, 최은희가 열연했다. (공동주최 : 한국영상자료원)

우리 연애의 이력 With or Without You

조성은 CHO Sung-eun
한국 I 2015 I 99분 I 극영화 I Color I 15세이상관람가
06.04(토) 16:00 |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이제는 한물간 30대 여배우 우연이와 조감독 선재는 충동적이고 짧은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는다. 하지만 이혼과는 별개로 좋은 동료이자 파트너로 함께 작업을 이어간다. 우연이와 선재는 두 사람의 연애담을 영화화 할 기회를 얻었지만, 실질적인 영화 제작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에 위기가 닥친다. 두 사람은 사랑의 기억에 대한 소유권을 각자 주장하면서 함께 작업한 시나리오를 칼로 물 베듯 찢어 나누어 가지는데... 사랑의 미묘한 감정을 포착하는 조성은 감독의 세심한 연출력, 주연을 맡은 전혜빈의 눈부신 연기와 주조연을 가리지 않는 배우들의 연기 앙상블이 돋보인다.

족구왕 The King of Jokgu 배리어프리

우문기 WOO Moon-gi
한국 I 2013 I 104분 I 극영화 I Color I 15세이상관람가
06.03(금) 14:00 | 무주 전통문화의 집 관객과의 대화★

청춘의 청춘에 의한 청춘을 위한 영화. 어느 학교, 어느 과에나 있다는 '복학생' 만섭은 군 제대 후 돌아온 학교에 마음 맞는 친구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 후배와 복도에서 커피 우유 곽을 접어 족구하길 여러 번. 우연한 계기로 학교의 퀸카 안나의 썸남 '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 강민을 족구 한판으로 무릎 꿇리기에 이르며, 취업준비만 하던 많은 친구들에게 족구를 전파하게 된 만섭, 그리고 개최된 학교 족구대회. 허술한 팀을 꾸린 만섭은 복수를 준비하는 강민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응답하라 1998>을 통해 인기배우가 된 배우 안재홍의 코믹연기가 돋보이며, 황승언을 비롯한 조연배우들의 연기 앙상블은 영화에 힘을 불어넣는다. 시청각 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상영된다.

커튼콜 Curtain Call

류훈 RYOO Hoon
한국 I 2016 I 99분 I 극영화 I Color I 15세이상관람가
06.03(금) 13:30 |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관객과의 대화★

연극의 안팎을 오가는 짜임새 있는 구조와 장현성, 박철민, 전무송을 비롯한 출연배우들의 연기 호흡이 인상적인 류훈 감독의 데뷔작이다. 경제적인 불황으로 문 닫기 일보 직전의 3류 에로 극단. 극단의 사장은 그들이 에로 연극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알지만, 그들은 꿈에 그리던 제대로 된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정통 연극 '햄릿'을 준비한다. 연극이 시작되고, 예기치 않은 실수와 애드립이 난무하면서 벌어지는 헤프닝으로 '햄릿'은 점점 미궁에 빠진다. 다수의 연극과 영화에서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전무송, 장현성, 박철민 그리고 떠오르는 신예스타 김고운과 이이경이 출연하여 엉뚱하고, 재치 넘치는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과연 우리의 3류 에로 극단은 해피엔딩의 커튼콜을 내릴 수 있을까.

다큐멘터리 Documentary

리슨 투 미 말론 Listen to Me Marlon

스티밴 라일리 Stevan Riley
영국 I 2015 I 95분 I 다큐멘터리 I Color I 청소년관람불가
06.04(토) 21:00 |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해외 전문가들로부터 '놀라운 걸작', '배우에 관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통찰력 있는 다큐멘터리'라는 격찬을 받은 바 있는,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 말론 브란도에 대한 독특한 인물 다큐멘터리다. 말론 브란도가 직접 녹음한 자기 독백적 음성 메모와 생전의 여러 인터뷰 속 브란도의 음성을 중심으로 말론 브란도에 대한 다양한 영상과 이미지와 음악을 정교하게 조합하여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말론 브란도의 일생을 재구성한다. 그의 명성과 여러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배우로서의 삶과 불행한 가정사, 결혼, 아들이 저지른 살인 사건, 딸의 자살 등 불행한 개인사들도 함께 언급된다. 죽은 자의 일생을 죽은 자의 목소리를 통해 재구성하는 이 전례 없는 형식의 다큐멘터리는 2015년을 대표하는 최고의 다큐멘터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마이단 Maidan

세르게이 로니차 Sergei Loznitsa
우크라이나 I 2014 I 130분 I 다큐멘터리 I Color I 12세이상관람가
06.03(금) 21:30 |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마이단 광장에서 벌어진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유로 마이단 혁명•과정을 담아낸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세르게이 로니차 감독의 최신 다큐멘터리다. 엄격하고 대담한 형식으로 복합적인 주제를 담아낸 이 영화에서 시위 현장과 시위 현장 속 폭력을 담아내는 카메라는 역사의 중요한 현장에 서 있는 엄중한 목격자가 된다. 2014년 칸영화제 상영 당시 영화평론가들이 투표로 선정한 칸영화제 베스트 상영작 5위를 차지한 이 다큐멘터리는 치열하고 진지한 시위 현장의 기록인 동시에 인간의 존엄과 혁명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내고 있다.

• **유로 마이단 혁명** 2013년 11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의존하려는 정부에 반대해 유럽연합으로의 통합을 지지하는 대중들의 시위로 시작되어 확대된 시민 혁명이다. 2014년 2월 18일 폭력 진압에 의해 74명이 죽고 1100여명이 부상당하는 폭력 진압으로 인해 전국적 봉기로 확대되었다.

시티즌포 Citizenfour

로라 포이트라스 Laura Poitras
독일, 미국 I 2014 I 117분 I 다큐멘터리 I Color I 12세이상관람가
06.05(일) 20:00 |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픽션 영화보다 더 리얼하고, 긴장감 넘치는 최고의 다큐멘터리다. 미국의 전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년 1월 '시티즌포'라는 ID로 감독 로라 포이트라스에게 접촉했다. 스노이든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미국인 대량 감시를 폭로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로라 포이트라스는 그를 설득해 촬영을 하기로 결심한다. 우리나라와 13시간의 시차가 나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지만, 이 다큐멘터리 속 미국의 현실은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검열과 자기 검열이 일상화된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 2014년 아카데미영화상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다.

에이미 AMY

아시프 카파디아 Asif Kapadia
영국 | 2015 | 127분 | 다큐멘터리 | Color | 청소년관람불가
06.06(월) 11:00 |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21살에 데뷔하여 단 2장의 정규앨범, 전 세계 1,500만장의 앨범 판매, 그래미 어워드 6개 부문을 수상한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인생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그녀의 인생 이야기와 가사를 꾸며 쓰지 않는 그녀의 노래가 이어지면서 우리는 마치 에이미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순탄하지 못했던 그녀의 삶 속에서 순수하게 음악을 사랑한 그리고 사랑을 원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후까지도 마음을 아리게 만든다. 그녀를 모르더라도 영화를 보고나면 그녀의 음악을, 그녀의 삶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 2016년 미국 아카데미시상식에서 장편 다큐멘터리상 수상작이다.

침묵의 시선 The Look of Silence

조슈아 오펜하이머 Joshua Oppenheimer
덴마크 | 2014 | 103분 | 다큐멘터리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06.06(월) 13:30 |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화제의 다큐멘터리 <액트 오브 킬링>을 연출한 조슈아 오펜하이머 감독의 신작 다큐멘터리다. 안경사인 '아디'는 인도네시아의 군부정권 시절 자신의 형을 잃었고, 50년 만에 형을 죽인 살인자를 찾아가 그때의 이야기를 묻는다. 가해자들은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증언한다. 이 대학살은 많은 가족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공포에 사로 잡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다. '진실'은 있지만, '죽음'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말하는 가해자들은 그저 눈을 가린다. 2015년 제65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엠네스티국제영화상을 수상했으며, 2014년을 대표하는 최고의 다큐멘터리로 평가받은 작품이다.

커트 코베인: 몽타주 오브 헥

Cobain: Montage of Heck

브렛 모겐 Brett Morgen
미국 | 2015 | 145분 | 다큐멘터리 | Color | 청소년관람불가
06.03(금) 10:30 |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세계적인 전설의 록 그룹 너바나의 보컬이자 1990년대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었던 커트 코베인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커트 코베인의 부인이었던 코트니 러브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이 다큐멘터리는 꾸준히 만들어져 온 그에 관한 다큐멘터리 가운데 유일하게 가족의 협조 속에 만들어졌으며, 너바나의 미공개 음원이 수록되어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다. 코베인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모든 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던 감독은 가족들이 찍은 영상, 무대실황, 메모,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서 커트 코베인의 짧은 생을 재구성해 나간다. 2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등진 당대 최고의 뮤지션이자 시대의 아이콘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이자, 남편이면서 아빠이기도 했던 커트 코베인의 삶을 확인할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애니메이션 Animation

괴물의 아이 The Boy and The Beast

호소다 마모루 Hosoda Mamoru
일본 | 2015 | 119분 | 애니메이션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06.04(토) 13:30 |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미야자키 하야오를 잇는 차세대 감독 호소다 마모루의 최신 작품이다. 괴물 손에 길러진 인간 소년 '큐타'와 인간을 제자로 삼은 괴물 '쿠마테츠', 서로 다른 그들이 하나의 세상을 만든다는 내용을 그린 판타지 애니메이션이다. <괴물의 아이>는 호소다 마모루의 아들이 태어나면서 기획하게 된 작품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새로운 가족의 형태 등 현대사회에서 고민해야할 소중한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내었다. 다양한 동물 캐릭터와 환상적인 이야기로 어린이들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환기할 수 있어 어른들까지 매료될 수 있는 작품이다.

극장판 울트라맨 우주 몬스터 대결전

Mega Monster Battle: Ultra Galaxy Legends - The Movie

사카모토 코이치 Koichi Sakamoto
일본 | 2009 | 95분 | 극영화 | Color | 전체관람가
06.05(일) 13:00 |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1966년 세상에 처음 나타난 울트라맨이 2016년 탄생 50주년을 맞이했다. 긴 세월동안 일본, 한국, 중국, 태국 등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SF 액션 히어로의 극장판 시리즈를 올해 무주산골영화제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극악무도한 강적 이블 울트라맨 '베리얼'이 이끄는 수백의 몬스터 군단에 맞서 은하계를 구하기 위해 연합한 울트라 전사들의 고군분투를 그린다. 온 세대를 아우르는 추억과 즐거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작품이다.

숀 더 쉽 Shaun the Sheep Movie

마크 버튼, 리처드 스타잭 Mark Burton, Richard Starzack
영국, 프랑스 | 2015 | 85분 | 애니메이션 | Color | 전체관람가
06.03(금) 16:30 |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1992년 제작된 〈월레스와 그로밋〉을 만든 클레이 애니메이션계의 대부 아드만 스튜디오의 작품이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주인공 '숀'과 그의 친구들인 사고뭉치 양떼들이 아빠를 찾아 도심으로 들어가는 모험을 다룬 기발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도심 속에서 아빠는 사고로 기억을 잃고, '숀'과 친구들을 만났지만 아빠는 양떼가 무서워 내쫓기에 이른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즐겁게 볼 수 있는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20~30대에게는 치즈와 크래커를 맛있게 먹던 월레스와 그로밋을 떠올리게 한다.

해외영화 World Cinema

45년 후 45 Years

앤드류 헤이 Andrew Haigh
영국 | 2015 | 95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06.06(월) 14:00 | 산골영화관 태권관

결혼 45주년 파티 준비를 하던 케이트와 제프 부부에게 남편 첫사랑의 시신이 알프스에서 발견되었다는 편지가 도착한다. 제프는 첫사랑의 편지, 사진 등 그녀와의 추억을 곱씹고, 케이트는 그런 그가 못내 못마땅하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샬롯 램플링이 여우주연상의 후보로 노미네이트되기도 하였으며, 세계 유수의 시상식에서 작품상,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 등을 수상한 작품이다. 케이트 역을 맡은 샬롯 램플링의 섬세한 표정연기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삶에서의 선택과 감정, 시간에 대해 떠올리게 만든다. 영국 대표 영화잡지 「사이트 앤 사운드」 선정 2015년 올해의 영화 7위를 차지했다.

그런날 사이에 어떤날 I Used to Be Darker

매튜 포터필드 Matthew Porterfield
미국 | 2013 | 90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06.03(금) 11:00 | 산골영화관 태권관

두 번째 영화 <퍼티 힐>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매튜 포터필드 감독의 세 번째 영화다. 2013년도 선댄스 영화제 최고의 화제작으로 '2013년 최고의 음악영화', '선댄스영화제 최고작'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영국에 살던 타린은 자신의 임신 사실에 당황하고 잠시 도피하기 위해 메릴랜드에 있는 이모에게 간다. 그러나 가수인 이모는 남편과 이혼을 생각 중이고, 이모의 딸 애비는 남자친구와 헤어져 괴로워하는 중이다. 타린이 잠깐의 도피를 위해 찾아온 이곳은 온통 어둡고, 우울한 이야기뿐이다. 원제 그대로 등장인물들은 늘 우울해하고, 쉬이 안정감을 찾지 못한다. 가족이 와해되고, 새로 시작되는 과정의 감정을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잘 담아낸 작품이다.

나의 어머니 Mia Madre

난니 모레티 Nanni Moretti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 2015 | 106분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06.03(금) 11:30 | 무주 전통문화의 집

프랑스 영화잡지 '카이에 뒤 시네마'에 의해 2015년 올해의 영화 1위에 선정된 이탈리아의 거장 난니 모레티 감독의 신작이다. 누구나 부러워할만한 삶을 사는 영화감독 '마르게리타'에게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 촬영현장과 비밀이 많아진 사춘기 딸 그리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전 남편, 애인과의 관계 속에서 혼란스럽다. 그리고 언제나 곁에 있을 것만 같은 엄마와의 이별을 준비해야한다. 어머니의 부재라는 일생에 한 번은 마주해야 하는 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깊은 공허함,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마음을 경험하게 하는 가슴 먹먹한 영화. 제68회 칸영화제 특별상을 수상했다.

너는 착한 아이 Being Good

오미보 Mipo O
일본 | 2015 | 121분 | 극영화 | Color | 전체관람가
06.05(일) 16:30 | 무주 전통문화의 집

카와키 하쓰에가 2010년 일어난 오사카 유아 남매 방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집필한 소설 『너는 착한 아이야』를 원작으로 한 오미보 감독의 신작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를 따뜻한 시선으로 연출한 영화다. 작은 마을, 부모의 방치로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아이와 아이를 구하기 위해 맞서는 신입 교사, 그리고 밖에서는 상냥한 엄마지만 집에 오면 어린 딸에게 상처를 주는 젊은 엄마, 가족이 모두 떠나고 홀로 된 치매 할머니에게 매일 같이 찾아오는 자폐증을 가진 어린아이까지. 각자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치유해 가는 과정을 담아낸 영화다. 일본 대표 영화잡지 「키네마 준보」 선정 2015년 최고의 일본영화 10위에 선정되었다.

다가오는 것들 Things to Come

미아 한센-로브 Mia Hansen-Love
프랑스 | 2016 | 100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06.03(금) 18:30 |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산골토크

프랑스 EDM에 대한 헌사와 같았던 <에덴: 로스트 인 뮤직>을 연출한 미아 한센-로브 감독의 신작. 파리의 한 고등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중년 여성 나탈리. 두 자녀와 나이든 어머니 그리고 남편까지 그녀는 작은 가정을 꾸리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을 할애한다. 일에 대한 열정과 사유에 대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나탈리에게 어느 날 남편이 그녀의 곁을 떠나고 싶다고 고백한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던 그녀의 일상에 균열이 생긴다. 미아 한센-로브 감독의 세밀한 연출력과 이자벨 위페르의 뛰어난 연기력을 확인할 수 있는 영화로 2016년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감독상)을 수상했다.

더 디너 The Dinner

이바노 데 마테오 Ivano De Matteo
이탈리아 | 2014 | 95분 | 극영화 | Color | 청소년관람불가
06.04(토) 19:30 | 산골영화관 태권관 산골토크 (산골힐링시네마 : 한국영상치료학회)

한 달에 한 번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 모임을 가지는 두 형제 부부. 물질적인 면을 중시하는 변호사 형과 이상적인 삶을 꿈꾸는 소아과 의사 동생은 사사건건 의견이 맞지 않는다. 그런 두 형제 부부는 자신들의 아이들이 벌인 범죄를 마주하게 된다. 단순한 이야기 구조 속에 던져지는 묵직한 질문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평범하게 가족들과 마주하는 순간인 저녁 식사 시간에 알게 되는 끔찍한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윤리적으로 답을 내릴 수 있을까.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중산층의 허위의식을 고발하는 이 영화의 메시지는 영화가 끝나도 지속된다. 영화가 종료되고 한국영상치료학회에서 진행하는 '산골힐링시네마' 토크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더 코뮌 The Commune

토마스 빈터베르그 Thomas Vinterberg
덴마크 | 2016 | 90분 | 극영화 | Color | 청소년관람불가
06.05(일) 18:00 |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덴마크를 배경으로 한 이국적인 미장센을 통해 공동체의 집단 본성을 과감하게 드러내며 전 세계적인 호평을 받은 바 있는 <더 헌트>를 연출한 덴마크의 대표 감독 토마스 빈터베르크 감독의 신작이다. 1970년의 코펜하겐.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에릭과 안나 부부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고급 별장에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살기로 결정한다. 면접을 통해 선발한 사람들과 매일 밤 파티를 하고, 우정과 사랑을 나누며 '꿈꿔왔던 공동체'를 이뤘다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한 여자의 등장으로 공동체의 평화로움은 깨지기 시작한다. 2016년 베를린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작이다.

렛 미 인 Let the Right One In

토마스 알프레드슨 Tomas Alfredson
스웨덴 | 2008 | 114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06.03(금) 19:00 | 무주 전통문화의 집

서구에서 흔한 뱀파이어 청춘 멜로 장르를 북유럽을 배경으로 스타일리쉬하게 그려낸 수작으로 2008년 한국 개봉 당시 '작은 영화의 돌풍'의 중심에 있었던 영화다. 친구들의 괴롭힘과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엄마 그 가운데 혼자 덩그러니 있는 소년 오스칼. 눈 내리던 어느 밤, 조용히 이사 온 창백한 얼굴의 소녀 이엘리를 만나게 된다. 오스칼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연약한 자신과는 다르게 추위도 타지 않는 강한 소녀 이엘리를 통해 조금씩 변화하게 된다. 순수하기에 직설적이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잔혹한 소년과 소녀의 사랑이야기. 관심과 신뢰, 사랑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아이의 성장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 Our Little Sister

고레에다 히로카즈 Hirokazu Koreeda
일본 | 2015 | 128분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06.04(토) 16:30 | 무주 전통문화의 집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삶의 아름다운 순간을 탁월하게 포착하는 일본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이다. 요시다 아키미의 동명 만화『바닷마을 다이어리』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작은 바닷가 마을 카마쿠라에 살고 있는 네 자매의 이야기다. 사치, 요시노, 치카 그리고 이복동생 스즈. 네 자매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하나의 가족으로 성장한다. 영화 속 아름다운 음악은 일본의 대표적인 음악감독이자 <카우보이 비밥>, <허니와 클로버>, 한국 영화 <우아한 세계>등을 작업한 칸노 요코가 참여했다.

벨벳 골드마인 Velvet Goldmine *in memory of David Bowie*

토드 헤인즈 Todd Haynes
영국, 미국 | 1998 | 124분 | 극영화 | Color | 청소년관람불가
06.05(일) 17:00 | 산골영화관 태권관 산골토크

올해 최고의 화제작 중 한편인 <캐롤>을 연출한 토드 헤인즈 감독의 1998년 작이다. 1970년대 영국에서 유행하던 글램록 최고의 스타인 브라이언 슬레이드가 월드투어 콘서트에서 암살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의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며, 비난과 함께 사람들에게 점차 잊혀져간다. 10년 후 브라이언의 팬이었던 아서(크리스찬 베일)는 기자가 되어 당시의 사건을 취재한다. 시대는 변하고, 유행도 변해간다. 아서가 현재의 브라이언 주변 인물들을 만나 그에 대해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는 변해버린 지금의 브라이언을 만나게 된다.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한 청년, 정작 바뀐 것은 우리였다.

사울의 아들 Son of Saul

라즐로 네메스 Laszlo Nemes
헝가리 | 2015 | 107분 | 극영화 | Color | 청소년관람불가
06.04(토) 14:00 | 무주 전통문화의 집

1944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시체들을 처리하기 위한 비밀작업반이 있었다. '존더코만도'•라 불리던 이들은 X자 표시가 된 작업복을 입고, 묵묵하게 오직 시키는 대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다. 어느 날, '존더코만도' 소속의 남자 '사울'의 앞에 자신의 어린 아들의 주검이 도착한다. 거의 1인칭에 가까운 시점쇼트로 주인공에게 밀착한 카메라와 생생한 사운드는 관객으로 하여금 참혹한 역사의 현장을 체험케 한다. 영화적 체험이란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사울의 아들>은 전 세계 영화제에서 38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고, 특히 2015년 칸 영화제에서 신인 감독의 데뷔작으로는 이례적으로 경쟁 부문에 초청되었다.

• **존더코만도(Sonderkommando)**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났다. 존더코만도는 유대인을 안심시키고 가스실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들은 시체를 처리하고 잔업이 주된 업무였지만, 나치의 살해가 조금 늦춰졌을 뿐 그들 역시 죽음을 맞이했다.

선생님 일기 The Teacher's Diary

니티왓 다라톤 Nithiwat Tharathorn
태국 | 2014 | 110분 | 극영화 | Color | 전체관람가
06.04(토) 18:30 |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태국의 아주 작은 오지 섬마을. 수상학교로 발령을 자처한 젊고 당돌한 여교사 '앤'은 순수하고 맑은 아이들과의 생활에 힐링하며 책임감 있는 교사로 성장한다. 그리고 1년 뒤, 전직 레슬링 선수였던 '송'이 수상학교로 발령받게 된다. 휴대전화 신호도 잡히지 않는 외딴 곳에서 '송'은 '앤'이 남기고 간 일기장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낀다. 하나의 공간, 다른 시간에서 벌어지는 두 캐릭터의 이야기가 교차한다. 2014년 태국에서 영화가 개봉한 후 천만 관객을 동원한 작품으로 한국에서도 리메이크를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다.

순응자 The Conformist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Bernardo Bertolucci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 1970 | 111분 | 드라마 | Color | 청소년관람불가
06.04(토) 13:30 | 산골영화관 태권관 산골토크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마르첼로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다.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자 중산층 집안의 줄리아와 결혼하고, 대중의 지지를 받는 무솔리니 정권의 비밀경찰에 자원하지만 첫 번째 임무와 자신의 마음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다. 1970년 이탈리아의 거장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가 29세에 연출한 세계영화사 최고의 걸작 중 한 편으로 한국에서는 46년 만에 극장 개봉했다.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코엔 형제, 박찬욱 등 국내외 수많은 감독들에게 영감을 주고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베르톨루치 감독이 세계적인 촬영감독 비토리오 스트라로와 함께 창조한 매혹적인 스타일과 영화 미학은 광고, 패션, 드라마, 디자인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스티브 잡스 Steve Jobs

대니 보일 Danny Boyle
미국 | 2015 | 122분 | 드라마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06.03(금) 13:00 | 산골영화관 태권관

스타일리쉬한 영상을 만드는 대니 보일 감독과 할리우드 최고의 각본가 아론 소킨이 만났고, 마이클 패스벤더가 주연을 맡은 영화로 제73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수상, 전 세계 20개 시상식 52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된 작품이다. 디지털 시대에 커다란 혁신의 계기가 되었던 스티브 잡스의 3번의 프레젠테이션. 각 3번의 프레젠테이션 시작 전 40분간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마치 연극의 3막을 보는 듯 한 연출로 이야기를 구성한다. 각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촬영 장비를 달리하여(1막 16mm, 2막 35mm, 3막 ALEXA) 촬영을 진행하였고, 연극처럼 이야기의 진행시간과 러닝 타임이 동일하게 흐른다. 쉴 새 없이 주고받는 인물들의 대화는 마치 액션영화를 방불케 한다.

슬로우 웨스트 Slow West

존 맥클린 John Maclean
영국, 뉴질랜드 | 2015 | 84분 | 드라마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06.05(일) 19:00 | 무주 전통문화의 집

19세기 서부개척시대. 현상금 사냥꾼 사일러스(마이클 패스벤더)는 미국 원주민을 사냥하는 북부군으로부터 16살짜리 소년 제이(코디 스밋-맥피)를 구해준다. 제이는 자신이 너무 사랑했던 그러나 아버지와 서부로 떠난 여자 친구 로즈를 만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에서 미국 중서부 콜로라도로 향하는 중이다. 영화 <슬로우 웨스트>는 우리가 알고 있던 전형적인 서부극의 캐릭터, 내러티브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서부극의 내러티브를 빌린 한편의 동화 같은 우아한 성장영화를 만날 수 있다. 2015년 제31회 선댄스영화제 심사위원대상(월드시네마)을 수상하였으며, 다수의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엑스 마키나 Ex Machina

알렉스 가랜드 Alex Garland
미국, 영국 | 2015 | 108분 | 극영화 | Color | 청소년관람불가
06.06(월) 11:30 | 산골영화관 태권관

유능한 프로그래머 '칼렙'은 치열한 경쟁 끝에 인공지능 분야의 개발자 '네이든'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된다. '칼렙'은 '네이든'의 비밀 연구소에서 인간보다 매혹적인 A.I. '에이바'를 만나게 된다. 여성 A.I를 둘러싼 두 남자의 관계를 밀도 있게 그려 낸 작품이다. 영화는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 사유하고,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28일 후>, <비치>, <선샤인> 등의 각본을 주로 써온 독창적인 스토리텔러 알렉스 가랜드 감독의 첫 연출작이며, 다양한 배역을 맡으며 연기력을 쌓는 돔놀 글리슨, 오스카 아이삭 그리고 알리시아 비칸데르 세 배우는 극의 긴장감을 높이는 완벽한 연기를 펼친다.

오슬로, 8월 31일 Oslo, 31. August

요아킴 트리에 Joachim Trier
노르웨이 | 2011 | 95분 | 극영화 | Color | 15세이상관람가
06.04(토) 11:00 |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2007년 데뷔작 <리프라이즈>를 연출한 노르웨이 출신의 요아킴 트리에 감독이 두 번째로 연출한 2011년 작이자 전후 불안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피에르 드리외 라 로셸의 소설 <도깨비불>을 원작으로 한 영화다. 약물 중독 치료를 하며 일자리 면접을 위해 오랜만에 시내로 나와 친구들을 만나는 '앤더슨'의 하루 동안의 이야기다.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가는 카페에서 앤더슨은 함께 있지만 끊임없이 혼자 고립된다. 우울하고 회색빛의 오슬로의 풍경 속을 지나 물에 이르러 자살하는 그의 삶은 인간이 갖는 깊은 고독과 우울, 상실감을 느끼게 만든다. 2011년 스톡홀롬영화제에서 작품상과 촬영상을 수상하면서 '완벽하게 그려진 한 세대의 초상'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는 2011년을 대표하는 최고의 작품 중 한편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영된다.

유레카 Eureka *in memory of All Survivors of Sewol Ferry Disaster*

아오야마 신지 Shinji Aoyama
일본 | 2000 | 217분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06.05(일) 10:30 | 산골영화관 태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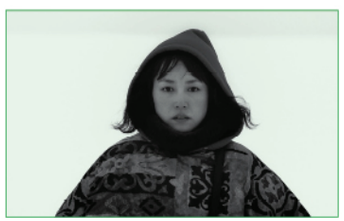
어느 시골에서 일어난 버스 총기 인질 사건에서 살아남은 세 사람의 이야기다. 사건 발생 후 호기심 어린 주변의 시선 속에서 상처받은 버스 운전기사 사와이와 나오키 남매. 사건 이후 나오키 남매의 가정은 붕괴되었고, 남매는 서로만을 의지한 채 사회와 단절하여 생활한다. 그리고 홀연 사라졌던 버스 기사 사와이는 2년 만에 돌아와 나오키 남매를 만나 함께 지내게 된다. 큰 사고를 겪은 후 어느 곳에서도 환대받지 못한 채, '내가 살아난 것이 잘못인가?'라고 자문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 옴진리교 가스 테러사건이 일본 사회에 남긴 트라우마를 다루고 있는 이 영화는 큰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한 생존이나 고통의 해소가 아니라 삶에 최대한의 가능성을 되돌려주는 것임을 깨닫게 한다. 2000년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서 상영되었다.

인 더 섀도우 오브 우먼 In the Shadow of Women

필립 가렐 Philippe Garrel
프랑스, 스위스 I 2015 I 74분 I 극영화 I B&W I 15세이상관람가
06.05(일) 19:30 | 산골영화관 반디관

제68회 칸영화제 감독주간 개막작, 『카이에 뒤 시네마』 선정 올해의 영화 TOP 10. 프랑스 누벨바그•의 거장 필립 가렐 감독의 신작이다. 다큐멘터리 감독 피에르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돕는 아내 마농. 피에르는 젊은 애인 엘리자베스와 사랑에 빠지고,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다. 두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하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 안에서 퍼져 나오는 시기, 질투 등 다양한 감정들을 잘 담아낸 작품이다. 가장 통속적인 소재를 우리의 삶을 성찰케 하는 예술로 만들어 내는 필립 가렐의 마법과 같은 연출력을 확인할 수 있다.

• **누벨바그** 1950년대 후반에 시작된 프랑스의 영화 운동으로 '새로운 물결(New Wave)'이란 뜻이다. 주제와 기술상의 혁신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프랑스 영화 산업에 대한 반동으로 형성되었다. 필립 가렐은 베니스 국제영화제 은사자상 수상에 빛나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영화감독이자 포스트 누벨바그의 거장이다.



쿠미코, 더 트레져 헌터 Kumiko, the Treasure Hunter

데이비드 젤너 David Zellner
미국 I 2014 I 104분 I 극영화 I Color I 12세이상관람가
06.04(토) 11:30 | 무주 전통문화의 집

데이비드 젤너의 <쿠미코, 더 트레져 헌터>는 코엔형제의 1996년 작품 <파고>와 관련 깊은 영화다. 영화의 주인공 쿠미코는 대도시 도쿄에서 살고 있지만 고독감을 느낀다. 끔찍한 회사 생활과 상사, 치고 올라오는 매력적인 후배들, 결혼하라고 잔소리 하는 엄마까지. 그런 쿠미코에게 동굴 속에서 발견한 영화 테이프 <파고>는 그녀의 삶의 유일한 탈출구다. 영화를 보고, 지도를 만들고 그녀는 영화 <파고>의 주인공 '칼'이 눈밭에 숨겨둔 돈을 찾기 위해 도쿄에서 미네소타로 향한다. 영화는 만들어지는 어떤 허상이지만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감정을 공유하면서 허상이 아닌 진실로 발전하기도 한다. 2000년대 초반 실제로 일본인 여성이 <파고> 속 보물을 찾겠다고 미네소타에 갔다가 죽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크로닉 Chronic

미첼 프랑코 Michel Franco
멕시코 I 2015 I 94분 I 극영화 I Color I 15세이상관람가
06.03(금) 16:30 | 무주 전통문화의 집

죽음을 목전에 둔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간호사, 데이비드. 그는 환자들에게 헌신하고 다른 간호사들과 달리 환자들의 삶에 아주 깊숙이 개입한다. 하지만 그의 과한 태도는 환자의 가족들에게 오해를 사고, 환자 학대로 고소를 당하며 결국 직장을 잃는다. 이후 지인의 소개로 다시 간호 일을 시작하지만 데이비드의 과거를 이용해 감당하기 힘든 부탁을 요구한다. 단 97개의 롱테이크 쇼트로 구성된 영화 <크로닉>은 94분의 상영시간 동안 데이비드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첼 프랑코 감독이 연출하였고, 할리우드에서 감독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배우 팀 로스가 주연한 작품으로 2015년 칸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하였다.

탠저린 Tangerine

션 베이커 Sean Baker
미국 I 2015 I 88분 I 극영화 I Color I 15세이상관람가
06.05(일) 15:30 |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데뷔작 <프린스 오브 브로드웨이>와 두 번째 장편영화 <스타렛>으로 사회적 소수자로 살아가는 인물을 통해 일상 가운데 존재하는 어떤 감동의 순간을 잡아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 온 션 베이커 감독의 세 번째 장편영화다. 틴젤타운의 크리스마스이브.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된 트랜스젠더 '신디'는 친구 '알렉산드라'와 자신의 남자친구를 빼앗아간 여자를 찾아 나선다. 단순한 줄거리지만 영화는 트랜스젠더와 섹스, 마약 등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소재와 성적,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유머와 강렬한 비트의 음악을 통해 유쾌하게 풀어낸다. <탠저린>은 아이폰 5S에 아나모 렌즈를 장착하여 촬영한 장편영화로 2015년 선댄스 영화제 최고의 화제작이었다.

피닉스 Phoenix

크리스티안 펫졸드 Christian Petzold
독일, 폴란드 I 2014 I 98분 I 극영화 I Color I 12세이상관람가
06.05(일) 11:00 |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독일을 대표하는 크리스티안 펫졸드 감독의 최신작이자 숨은 걸작으로 평가받는 <피닉스>는 2차 대전 직후 독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크리스티안 펫졸드 감독 전작 <바바라>의 주연을 맡은 니나 호스와 로날드 제르펠트가 다시 주연을 맡은 영화로, 나치 점령기 체코에서 태어난 독일의 감독 겸 작가 故 하룬 파로키가 각색한 마지막 작품이다. 나치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가수 넬리는 수용소에서 입은 얼굴의 상처 때문에 친구 레네의 도움으로 성형수술을 받아 타인의 얼굴을 갖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남편 조니를 만나기 위해 그가 일하는 술집 피닉스를 찾아가지만, 조니는 넬리를 알아보지 못한다. 다시 남편을 만난 넬리는 자신이 수용소에 갇히게 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하루 Today

레자 미르카리미 Seyyed Reza Mir-Karimi
이란 I 2014 I 87분 I 극영화 I Color I 15세이상관람가
06.05(일) 14:00 | 무주 전통문화의 집

단조롭고 무료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려던 택시기사 '유네스'에게 폭행의 흔적이 있는 임산부가 필사적으로 자신을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다. '유네스'는 그런 그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병원으로 향한다. 병원에서 그녀를 폭행한 남편으로 오해를 받고, 윤리적 지탄을 받아도 '유네스'는 그저 묵묵하게 그녀의 옆을 지켜준다. 이란이라는 국가적 특수성을 지닌 작품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타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아주 보편적인 주제를 탁월하게 담아낸 영화이기도 하다.

한나 아렌트 Hannah Arend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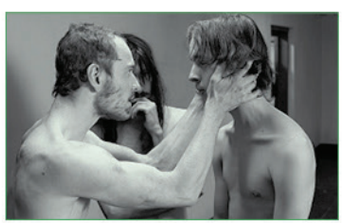
마가레테 폰 트로타 Margarethe Von Trotta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 I 2014 I 113분 I 극영화 I Color I 15세이상관람가
06.03(금) 19:30 | 산골영화관 태권관 산골토크

독일계 유대인 정치 철학가 한나 아렌트가 겪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나치 전범인 칼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내용을 보며, 그녀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정립한다. 하지만 그녀의 의견은 가족, 친구, 유대계 커뮤니티 등 모든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한 철학자의 굳은 신념과 사유에 대한 이야기. 인간은 사유를 함으로써 지식을 얻기도 하지만 옳고 그름 등의 구분을 하기도 한다. 사유하기 어려운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한 철학가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해안가로의 여행 Journey to the Shore

구로사와 기요시 Kurosawa Kiyoshi
일본, 프랑스 I 2015 I 128분 I 극영화 I 2015 I Color I 15세이상관람가
06.03(금) 16:00 | 산골영화관 태권관 산골토크

<큐어>, <회로> 등 공포영화 장르를 통해 인간 내면의 그늘과 본성을 담아내온 일본 장르 영화의 거장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신작이다. 미즈키의 남편 유스케는 바다에서 실종되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유스케가 집으로 돌아왔다. 죽음에 대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유스케는 미즈키에게 자신과 여행을 떠나자고 말한다. 영화는 서로 다른 경계에 놓인 두 사람이 만나 이야기를 이어간다. 살아 있는 지금의 미즈키와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유스케. 삶과 죽음의 경계 속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판타지 멜로영화로 유모토 카즈미의 동명소설을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영화화한 작품으로 2015년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감독상을 수상했다.



헝거 Hunger

스티브 맥퀸 Steve Mcqueen
영국, 아일랜드 I 2008 I 96분 I 극영화 I Color I 청소년관람불가
06.05(일) 20:00 | 산골영화관 태권관

2008년 칸영화제 황금카메라상 수상작이며, 전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작품상과 남우주연상을 휩쓴 작품이다. <셰임>, <노예 12년>을 연출한 비쥬얼 아티스트 출신의 스티브 맥퀸 감독의 데뷔작이자 2016년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마이클 패스벤더의 첫 주연 작품이다. 1171년부터 시작되었던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의 지배와 독립을 위해 맞서 싸우게 되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 단식 투쟁을 벌였던 27살의 '보비 샌즈'와 IRA• 단원들이 권력에 맞서 저항하는 모습을 엄격한 형식을 통해 감동적으로 담아낸다.

• **IRA 아일랜드공화국군(Irish Republican Army)** 1919년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의 통일을 요구하는 반 군사조직이다. 1999년 북아일랜드 자치정부가 수립되고, 2001년 IRA가 무장해제를 선언함으로써 그동안 교착상태에 있던 북아일랜드평화협정 이행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헤이트풀8 The Hateful Eight

쿠엔틴 타란티노 Quentin Tarantino
미국 I 2015 I 167분 I 극영화 I Color I 청소년관람불가
06.03(금) 18:30 | 산골영화관 반디관

비밀을 감춘 채 눈보라 속에 갇힌 8인, 누군가 벌인 독살을 시작으로 각자의 속내를 드러내며 벌어지는 광기의 하룻밤을 그린 작품이다. 각 인물들 간의 관계가 얽혀서 서스펜스를 만들어내고, 타란티노 특유의 위트가 넘치는 수다가 압권이다. 탄탄한 이야기와 잔혹한 폭력이 주는 독특한 미학의 미장센을 만들어내 전 세계 영화팬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할리우드 거장 쿠엔틴 타란티노의 여덟 번째 작품이다. 영화의 음악은 엔니오 모리꼬네가 40년 만에 서부극 음악으로 컴백하였고, 2016년 제88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악상을 수상하였다.

환상의 빛 Maborosi *in memory of Families of Victims of Sewol Ferry Disaster*

고레에다 히로카즈 Hirokazu Koreeda
일본 I 1995 I 110분 I 극영화 I Color I 15세이상관람가
06.05(일) 14:30 | 산골영화관 태권관

데루 미야모토의 동명 단편소설을 각색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자 전 세계 최고의 데뷔작을 선정할 때 빠지지 않는 영화다. 3개월 된 아들, 자상한 남편과 평화롭게 보내던 유미코는 갑작스레 남편의 자살 소식을 듣는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이 되던 해, 남편이 자주 가던 술집에서 그가 자살한 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떠나보낸 사람과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미와 우아한 이야기 구조를 통해 삶의 의미와 상실에 대해 성찰케 하는 아름다운 영화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모든 영화 중 가장 엄격한 형식과 미니멀한 미장센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영화로, 1995년 제14회 벤쿠버국제영화제에서 용호상을 수상하면서 세상에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이름을 알린 출세작이기도 하다.

히어애프터 The Here After

매그너스 본 혼 Magnus von Horn
폴란드, 스웨덴, 프랑스 I 2015 I 102분 I 극영화 I Color I 15세이상관람가
06.04(토) 19:30 | 무주 전통문화의 집

제68회 칸영화제 감독 주간 공식 초청작으로 폴란드에서 수학한 스웨덴의 신예 매그너스 본 혼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스웨덴의 시골 마을. 교도소에서 출소한 욘은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온다. 하지만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은 그에게 적대적이다. 가족과의 갈등,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벌어지는 주변인들과의 갈등까지. 인간의 본성과 진정한 용서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북유럽 특유의 기운을 잘 담아내고 있는 이 영화는 아름다운 영상으로 호평을 받았던 폴란드 영화 <이다>의 촬영감독 루카스잘이 촬영을 맡았으며, 스웨덴의 팝스타 욜리크 문더가 주연을 맡았다.

락樂

Shouting Cinema

올해에도 '락' 섹션을 위한 야외상영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운동장 중 하나로 손꼽히는 故정기용 건축가가 설계한 무주의 등나무 운동장에 마련된다. 올해 '락' 섹션은 무주군민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등나무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라이브 연주와 함께 보는 최고의 무성영화 2편과 웃음과 감동, 인생의 씁쓸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한국영화 3편을 상영한다.

먼저, 영화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하나로 평가받는 찰리 채플린의 장편 데뷔작이자 채플린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이기도 한 무성영화 **<키드>**(1921)를 상영한다. 특히 <키드>의 상영에는 라이브 연주가 함께 할 예정이다. 라이브 연주를 맡아줄 두 주인공은 팝과 재즈를 아우르는 **보컬리스트이자 작곡가인 선우정아**와 2014년부터 선우정아와 함께 '리아노 품'이라는 프로젝트 밴드로 함께 활동해온 실력파 **재즈 피아니스트 염신혜**다.

<키드>와 함께 또 한편의 무성영화가 상영되는데, 그 두 번째 영화는 찰리 채플린과 함께 무성영화시대를 대표하는 또 한 명의 천재 감독이자 배우였던 버스터 키튼의 초기 영화를 대표하는 걸작 **<셜록 2세>**(1924)다. 현실의 인물이 영화 속으로 들어간다는 설정과 스턴트맨도 없이 소화한 고난도 액션 연기가 돋보이는 이 영화는 영국의 대표 영화잡지 『사이트 앤 사운드』가 선정한 '영화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에 포함된 바 있다. <셜록 2세> 역시 영화 상영과 함께 라이브 연주가 곁들여 진다. 라이브 연주는 2011년 첫 번째 앨범을 발표한 이후, 폴카, 스윙, 아이리쉬 스타일의 아름답고 낭만적인 음악을 선보이며 거리 공연이나 버스킹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해온 **어쿠스틱 밴드 신나는섬**이 맡는다.

또한 올해 개봉한 최신 한국 영화 중 감동과 유머, 그리고 인생의 슬픔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담아낸 한국 영화 3편을 선보인다. 올해 최고의 영화 중 한편이자 아름다운 흑백화면을 통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의 삶을 감동적으로 담아낸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 한국영화계의 히트메이커 천만요정 오달수가 주연을 맡아 연극배우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삶을 유쾌하게 담아낸 석민우 감독의 데뷔작 **<대배우>**, 그리고 미래의 한국영화를 책임질 신인배우 지수, 김준면, 류준열, 김희찬의 연기 앙상블이 돋보이는 최정열 감독의 데뷔작 **<글로리데이>**가 상영된다. 이 세 편의 한국영화 상영 전에는 감독 및 배우와의 만남의 시간이 함께 마련된다.

초 여름밤, 등나무운동장에서 함께 할 90여 년 전에 완성된 2편의 무성영화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디 뮤지션들이 만들어낼 앙상블과 감동과 웃음, 그리고 슬픔을 선사할 한국영화 3편은 산골 무주에서 즐기는 또 한 번의 잊지 못할 영화 감상의 기회를 선사할 것이다.

6/3 금요일

셜록 2세 Sherlock Jr. with Acoustic Instrumental Band 신나는섬

버스터 키튼 Buster Keaton
미국 | 1924 | 45분 | 극영화 | B&W | 전체관람가
06.03(금) 20:30 | 무주 등나무운동장

찰리 채플린과 함께 무성 영화의 슬랩스틱을 가장 탁월하게 표현해내는 배우이자 감독인 버스터 키튼의 1924년 작품이다. 찰리 채플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그의 작품이지만 탁월한 슬랩스틱과 그의 움직임은 지금 봐도 놀랍다. 극장에서 영사기사로 일하는 버스터에게 닥친 하나의 사건.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셜록 주니어가 된다. 영화가 영화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메타영화로써의 매력을 흠뻑 보여준다. 영화는 무성영화에 연주를 더하는 '어쿠스틱 밴드 신나는섬'의 공연과 함께 진행된다.

Acoustic Instrumental Band 신나는섬

"버스터 키튼은 영화에서 항상 무표정한 얼굴로 연기한다. 그의 표정은 아무것도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표현한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무표정'이라고도 불린다. 이번 <셜록 2세>에서 연주할 곡들은 탐정 추리극의 중심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 새로 만든 테마 한 곡과 신나는섬의 기존 레퍼토리들로 구성되었다. 신나는섬은 그 곡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표정을 지워내고 영화 장면에 맞게 다양하게 변주해보면서 곡들이 가진 많은 표정을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마치 버스터 키튼의 무표정처럼 신나는섬의 음악이 가진 다양한 감정들이 영화와 함께 전달이 되었으면 한다." (신나는섬)

——— 바이올린, 아코디언, 퍼커션, 기타, 우쿨렐레, 하모니카 등 다양한 악기들로 구성된 신나는섬은 어쿠스틱 악기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운드에 대한 시도를 거듭하며 창작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5인조 밴드이다. 삶을 바라보는 동화적 시선과 꿈과 현실을 오가는 상상력을 표현하기 위해 폴카, 아이리쉬, 집시, 스윙 등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와 장르의 구애를 받지 않는 독특한 음악을 추구한다.

대배우 The Great Actor

석민우 SEOK Min-woo
한국 | 2015 | 108분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06.03(금) 21:30 | 무주 등나무운동장 영화상영 전무대인사

아동극 '플란다스의 개'의 파트라슈 개 역할 전문으로 20년째 대학로를 지키고 있는 '성필(오달수)'은 극단 생활을 함께 했던 '설강식(윤제문)'이 국민배우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며 언젠가 자신도 대배우가 되리라 다짐한다. 매일 같은 배고픔과 불안, 가족을 향한 미안함을 애써 외면하던 '성필'에게 전 세계가 인정한 '깐느박(이경영)'의 신작 배우 모집 오디션을 볼 기회가 생긴다. 영화는 충무로 베테랑 배우 오달수, 윤제문, 이경영이 출연하였고, 배우들을 향한 애정 어린 시선을 듬뿍 담아낸 석민우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6/4 토요일

키드 The Kid with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 X 재즈 피아니스트 염신혜

찰리 채플린 Charles Chaplin
미국 I 1921 I 53분 I 극영화 I B&W I 전체관람가
06.04(토) 20:30 | 무주 등나무운동장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지만 키울 수가 없어 부잣집 문 앞에 있는 고급차 안에 아이를 두고 떠난다. 하지만 자동차 도둑이 그 차를 훔치면서, 아이를 쓰레기통 옆에 두고 간다. 길을 가던 떠돌이 찰리는 아이를 발견하고, 부득이하게 키우게 된다. 1921년에 완성된 <키드>는 찰리 채플린의 데뷔작이자 채플린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이기도 하다.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 소속의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와 재즈 피아니스트 염신혜가 결성한 프로젝트 그룹 '리아노품(Riano Poom)'이 무성영화에 음악을 덧입혀 초 여름밤의 아름다운 순간을 선물한다.

리아노품(Riano Poom) —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 X 재즈 피아니스트 염신혜

"영화 속 트램프(찰리 채플린의 캐릭터)는 구질구질하고 우스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향한 깊은 애정이 들어날 때면 얼핏 현대의 할리우드 남주인공처럼 멋져 보였다. '레옹'이 생각나기도 했다. Riano Poom은 재즈 듀오 프로젝트이지만 클래식 음악에서도 많은 영감을 받아 1집 앨범을 만들었다. 트램프의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를 향한 희생은 환경을 뛰어넘은 사랑에서 왔겠고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따뜻하다. 현대미와 고전미가 공존해 넓게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음악을 입히고 싶다. 소중한 작업이 될 것 같다." (선우정아)

——— 재즈 피아니스트 염신혜,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의 재즈 듀오 프로젝트. 피아노 방에서 두 사람이 연습하며 놀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소리들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최초에는 피아노룸(Piano Room)이란 가제가 붙어 있다가 이후 앞 글자와 뒷글자의 자음을 바꾸는 재미를 더해 리아노품이란 이름이 되었다. 우연하지만 그 결과 '품'이라는 우리말 단어가 지니는 따뜻함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스페인의 리아노(Riano) 호수의 이름이 절묘하게 어울려 이들의 음악과 참으로 어울리는 근사한 프로젝트명으로 탄생했다.

동주 DongJu: The Portrait of A Poet

이준익 LEE Joon-ik
한국 I 2015 I 110분 I 극영화 I B&W I 12세이상관람가
06.04(토) 21:30 | 무주 등나무운동장

이준익 감독의 최신 작품으로 시인 윤동주에 대한 이야기다. 한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갑내기 사촌인 윤동주와 송몽규. 시인이 되고 싶었지만 결국 시인이 될 수 없었던 청춘. 영화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윤동주와 송몽규가 겪어야 했던 가혹한 현실 속에서 꿈을 찾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윤동주의 시를 통해 한 시인의 마음을, 한 청년의 마음과 시대의 정신을 떠올리게 만든다. 윤동주 시인 서거 71주기, 윤동주의 반짝이는 시만큼이나 찬란한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흑백 화면으로 차분히 풀어냈다. 최근 떠오르는 신예 배우 강하늘과 박정민의 케미가 돋보이는 영화다.

6/5 일요일

글로리데이 One Way Trip

최정열 CHOI Jeong-yeol
한국 I 2015 I 93분 I 극영화 I Color I 15세이상관람가
06.05(일) 21:00 | 무주 등나무운동장 영화상영 전 무대인사

이제 막 스무 살이 된 친구 용비, 상우, 지공, 두만은 입대하는 상우의 배웅을 위해 오랜만에 여행을 떠난다. 각자의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던 친구들은 바닷가에서 위험에 처한 여자를 구하려다 시비에 휘말리면서 사건의 주범이 되어버린다. '진실'과 '사실' 사이에 놓인 4명의 친구들,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청춘들의 하루에 어둠이 짙게 내려앉는다. 2015년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파노라마' 섹션에 초청되어 예매 오픈 15분 만에 2500석을 초고속 매진시킨 작품이다.

숲林

Camping Cinema

작년부터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야영장 內 대집회장에 마련되어 관객들의 호평을 받은 숲 속 극장이 올해에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특히 무주산골영화제만의 프로그램 정체성을 한층 강화하고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울림'의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35mm 필름 영화 상영이 올해에도 계속된다.

올해 숲 속 극장은 총 3일간 운영된다.

첫째 날에는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은 일본 감독 중 한 명인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의 초기작이자 시간이 흘러도 많은 관객으로부터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그녀의 대표작 3편 - **<요시노 이발관>**(2004), **<카모메 식당>**(2006), **<안경>**(2007)이 **35mm 필름으로 연속 상영**된다. 소소한 일상 속 인물들과 따뜻한 유머를 통해 행복의 의미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이 3편의 영화와 영화제 기간 무주산골영화제를 방문하게 될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과의 대화 시간은 무주를 찾은 관객에게 잊지 못할 초 여름밤의 기억을 선사할 것이다.

둘째 날에는 가족 관객을 위한 애니메이션 1편과 많은 관객의 기억 속에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는 사랑에 관한 최고의 영화 2편이 상영된다. 먼저 2015년을 대표하는 최고의 애니메이션 중 한 편인 **<바다의 노래 : 벤과 셀키 요정의 비밀>**이 상영된다. 그리고 故 히스 레저의 출세작이자 <와호장룡>과 함께 이안 감독의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과 왕가위 감독의 두 번째 장편영화이자 故 장국영의 맘보춤으로 기억되는 저주받은 걸작 **<아비정전>이 35mm 필름으로** 상영된다. 세계영화사에 오랫동안 기록될 미국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이 두 편의 영화는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최고의 배우였던 히스 레저와 장국영을 기억하는 시간인 동시에 가장 아름답고 가슴 아픈 사랑에 대한 최고의 영화를 필름으로 다시 보는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이다.

셋째 날에는 최고의 음악영화 3편이 상영된다. 먼저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밴드인 '비틀즈'가 직접 출연했고, '주크박스 영화의 <시민 케인>'이라는 격찬을 받았던 현대 뮤직 비디오와 뮤직 다큐멘터리의 원형 **<비틀즈 : 하드 데이즈 나이트>**가 상영된다. 그리고 아이슬란드 대표 포스트 록 밴드 시규어 로스가 아이슬란드 각지에서 오직 입소문을 통해서만 관객을 받아 진행한 무료 음악회를 눈부신 영상으로 담아낸 콘서트 필름 **<헤이마>**(2007)와 2008년 영국 런던의 알렉산드라 궁전에서 열린 시규어 로스의 공연을 아름다운 흑백 영상으로 담아낸 콘서트 필름 **<시규어 로스 : 이니>**(2011)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상영된다.

덕유산 중턱, 해발 700m, 무주 구천동 33경의 한가운데 위치한 대한민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숲 속 극장에서 3일간 상영될 인생과 사랑, 그리고 음악에 관한 9편의 영화는 쫓기듯 일상을 사는 많은 관객들에게 일상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쉬어갈 수 있는 최고의 휴식을 선사할 것이다.

6/3 금요일

요시노 이발관 Yoshino's Barber Shop 35mm 필름 상영

오기가미 나오코 Naoko Ogigami
일본 I 2004 I 95분 I 극영화 I Color I 전체관람가
06.03(금) 20:00 |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內 대집회장

전통을 지키는 작은 마을. 마을의 전통은 소년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바가지 머리를 한다는 것이다. 전통이 지켜지고 있는 작은 마을에 최신 헤어스타일을 한 학생 사카가미가 전학 오게 된다. 이발사 요시노는 전학생 사카가미의 머리도 전통에 맞추려 한다. 변화의 시작은 아주 사소하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리고 행동한다는 것. 과연 사카가미는 헤어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을까? 2004년 전주국제영화제 경쟁부문을 통해 국내에 소개된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의 데뷔작이다.

카모메 식당 Kamome Diner 35mm 필름 상영

오기가미 나오코 Naoko Ogigami
일본 I 2006 I 102분 I 극영화 I Color I 전체관람가
06.03(금) 21:50 |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內 대집회장 관객과의 대화★ (영화상영 전)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는 사치에와 그런 그녀 곁으로 다가온 미도리와 마사코. 작고 소박한 식당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사연. 음식과 이야기가 만나 서로에게 위로를 전한다.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울림이 주는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의 영화 <카모메 식당>. 커피, 시나몬 롤, 오니기리, 연어구이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 맛깔스러운 식당으로 당신을 초대한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한국 관객들에게 여전히 사랑받는 아름다운 영화. 영화 상영 전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된다.

안경 Glasses 35mm 필름 상영

오기가미 나오코 Naoko Ogigami
일본 I 2007 I 106분 I 극영화 I Color I 전체관람가
06.03(금) 24:10 |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內 대집회장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는 조용하고 작은 바닷가 마을을 찾아온 다에코. 민박집 주인 유지의 지도는 때때로 수수께끼처럼 보인다. 누군가는 쉽게 혹은 누군가는 어렵게 찾는 곳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다에코에게 다가온 사람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 마을에 적응한다.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과 팥빙수를 나눠 먹으며, 가만히 사색을 하고, 체조를 하는 사람들. '중요한 건 조급해 하지 않는 것.' 다시금 여행을 떠나 물 흐르듯 지내고 싶은 마음을 남기는 소중한 영화.

6/4 토요일

바다의 노래: 벤과 셀키요정의 비밀 Song of the Sea

톰 무어 Tomm Moore
아일랜드, 덴마크,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I 2014 I 93분 I 애니메이션 I Color I 전체관람가
06.04(토) 19:30 |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內 대집회장

국내 관객들에게는 신선한 아일랜드의 전설을 모티브로 인간과 바다표범의 형상을 넘나드는 '셀키'요정의 아들과 딸의 이야기라는 소재로 시작한다. 딸 '시얼샤'를 낳고 갑작스레 사라진 엄마와 자신의 아내처럼 갑자기 사라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도시로 보내버리는 아빠 그리고 다시 아빠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장난기 가득한 9살 소년 '벤'과 귀여운 여동생 '시얼샤'의 모험을 다룬다. 2015년 제87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애니메이션 작품상에 노미네이트된 바 있다.

아비정전 Days Of Being Wild 35mm 필름 상영

in memory of Leslie Cheung 張國榮

왕가위 Kar Wai Wong
홍콩 I 1990 I 100분 I 극영화 I Color I 15세이상관람가
06.04(토) 21:20 |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內 대집회장 산골토크 (영화상영 전)

1990년 개봉 당시에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지금은 왕가위 감독의 대표작으로 손에 꼽힌다. 홍콩 최고 권위의 시상식인 홍콩금장상영화제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비롯해 5개 부문을 수상했다. 친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양어머니에게 자라온 탓에 사랑을 믿지 못하는 바람기 가득한 아비는 사랑을 원하지만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꺼린다. 도박장의 매점에서 만난 수리진이나 댄서였던 루루나 그에게는 그저 사랑하는 하나의 대상일 뿐이다. 루루와의 사랑도 식어갈 즈음 아비는 친어머니가 있다는 필리핀으로 향한다.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故 장국영이 아비 역을 맡았고, 흰 러닝셔츠와 트렁크를 입고 맘보춤을 추는 장면이 인상 깊게 남는다. 영화 상영 전 산골토크 시간이 마련된다.

브로크백 마운틴 Brokeback Mountain 35mm 필름 상영

in memory of Heath Ledger

이안 Ang Lee
미국, 캐나다 I 2005 I 133분 I 극영화 I Color I 15세이상관람가
06.04(토) 23:30 |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內 대집회장

록키산맥 만년설로 뒤덮인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20살의 청년 에니스와 잭은 양떼를 돌보게 된다. 매일 함께 일하며 대자연의 품에서 깊어져간 두 사람의 우정은 친구 사이 이상으로 발전해간다. 함께 하는 여름이 지나고 잭과 에니스는 다시 각자의 삶으로 향한다. 20년 간 짧은 만남, 긴 그리움을 반복하며 지내는 그들의 사랑은 안타깝기만 하다. 제이크 질렌할과 히스 레저의 아름다운 연기, 훌륭한 풍광이 주는 아름다움과 슬픔은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이어진다. 자살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故 히스 레저의 출세작으로 2006년 제7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색상, 감독상, 음악상을 수상했다.

6/5 일요일

비틀즈 : 하드 데이즈 나이트 A Hard Day's Night

리처드 레스터 Richard Lester
영국 I 1964 I 88분 I 극영화 I B&W I 전체관람가
06.05(일) 20:00 |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內 대집회장

비틀즈 멤버들이 직접 비틀즈의 하루를 담아낸 이 영화는 팬들을 피해 도망 다니고, 빈둥거리고, 활기찬 공연을 하는 비틀즈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을 빌려 담은 록 음악 영화의 고전 작품이다. 음악역사상 가장 위대한 밴드 중 하나인 '비틀즈'의 전 멤버가 출연했고, '주크박스 영화의 <시민 케인>'이라는 격찬과 함께 현대 뮤직 비디오와 뮤직 다큐멘터리의 원형으로 평가받는 최고의 음악영화이기도 하다. 고전적인 촬영 기법인 클로즈업, 인서트 숏 등을 사용하면서 한편으론 빠른 편집, 핸드헬드 등을 이용하여 비틀즈의 활기찬 음악과 영상이 어우러진다. 음악으로만 기억하는 비틀즈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영화.

헤이마 Heima

딘 데블로이스 Dean Deblois
아이슬란드 I 2007 I 97분 I 다큐멘터리 I Color I 전체관람가
06.05(일) 21:40 |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內 대집회장 산골토크 (영화상영 전)

월두 투어를 마치고 아이슬란드로 돌아온 세계적인 록밴드 시규어 로스는 계획에 없던 고향 투어를 시작한다. 모든 공연은 대중적인 장소 외에 앞으로 사라질 아이슬란드의 풍경을 택해 공연을 진행한다. 장엄하고 아름다운 아이슬란드의 풍경 속에서 울려 퍼지는 시규어 로스의 공연은 우리의 마음을 울린다. 유명 가수의 투어 여정을 담아낸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아이슬란드의 자연과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뮤지션의 관계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다. 'Heima(헤이마)'는 '집으로'라는 뜻을 담고 있다. 영화 상영 전 산골토크 시간이 마련된다.

시규어 로스: 이니 Sigur Ros: Inni

빈센트 모리세 Vincent Morisset
캐나다, 영국, 아이슬란드 I 2011 I 74분 I 다큐멘터리 I Color/B&W I 전체관람가
06.05(일) 23:30 |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內 대집회장

<헤이마>와 함께 손꼽히는 아이슬란드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슬란드 대표 포스트 록 밴드 시규어 로스의 대표적인 콘서트 필름이다. 2008년 영국 런던의 알렉산드라 궁전에서 열린 시규어 로스의 공연을 아름답고 몽환적인 흑백 영상으로 담아낸 이 작품은 짧은 러닝 타임이지만 리드 보컬 욘시의 몽환적이고 강렬한 목소리와 함께 시규어 로스의 음악을 생생하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콘서트 필름으론 흔치 않게 베니스 영화제의 서브 섹션 중 하나인 베니스 데이즈에서 상영된 바 있다.

길路

Town Cinema

'길' 섹션에서는 무주군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한다. 작년에는 무주 반딧불시장과의 협업을 통해 반딧불시장 원형광장에 '찾아가는 영화관'을 설치하여 2편의 영화를 상영한 바 있다. 올해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무주 군민의 영화제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지역 사회와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영화관'을 두 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올해 찾아가는 영화관이 운영될 곳은 무주 반딧불시장 원형광장과 안성면 두문마을이다. 특히 올해에는 영화 상영과 함께 반딧불 야시장과 안성면 두문마을이 자랑하는 한국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이가 함께 진행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운영되는 **반딧불시장 원형광장**의 '찾아가는 영화관'에서는 다큐멘터리 1편과 극영화 2편이 상영된다. 미국과 프랑스에 각각 살면서 서로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한국계 입양아 쌍둥이 자매가 페이스북을 통해 만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담아낸 화제의 다큐멘터리 **<트윈스터즈>**와 1980년대 중국의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남자주인공 한총과 청각장애인 아내 홍시아의 슬픈 사랑을 그린 멜로영화로 작년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되었던 래리 양 감독의 **<산이 울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관객과 영화전문가로부터 여전히 최고의 영화로 손꼽히는 팀 로빈스, 모건 프리먼 주연의 영화 **<쇼생크 탈출>**이 상영된다. 이와 함께 2015년 전주시민미디어센터가 주관하여 **전라북도의 임실, 진안, 장수, 무주에서 진행된 주민시네마스쿨**을 통해 **각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6편의 단편영화**가 3일에 걸쳐 2편씩 상영된다.

그리고 **안성면 두문마을**에 설치되는 찾아가는 영화관에서는 한국의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이와 함께 3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한국 애니메이션계를 대표하는 안재훈, 한혜진 감독이 2012년 3편의 한국단편소설을 원작으로 제작한 2D 단편 애니메이션 **<메밀꽃 필 무렵, 운수좋은 날, 그리고 봄봄>**과 2015년을 대표하는 최고의 한국영화 중 한 편으로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와 조선 최고의 명포수의 운명적인 관계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최민식 주연, 박훈정 감독의 영화 **<대호>**, 그리고 이탈리아의 로베르토 베니니가 연출, 각본, 주연을 맡아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참혹한 수용소 안에서 가족을 끝까지 지켜낸 아버지 '귀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가 상영된다.

아름다운 무주의 초 여름밤, 전통 시장과 작은 산골 마을에 마련될 자그마한 야외극장은 무주 군민과 무주를 찾은 관객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안성면 두문마을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 The Road Called Life

안재훈, 한혜진 AHN Jae-Hun, HAN Hye-Jin
한국 | 2014 | 90분 | 애니메이션 | Color | 전체관람가
06.03(금) 21:00 | 안성면 두문마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읽어보고, 들어봤을 한국 단편 문학 김유정의 『봄봄』,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했다. 풋풋한 사랑과 처참했던 슬픔, 아련한 추억을 느낄 수 있는 세 편의 단편은 2011년 <소중한 날의 꿈>을 만든 안재훈, 한혜진 감독이 설립한 애니메이션 제작사 '연필로 명상하기'의 작품이다. 한국적 아름다움을 잘 담아낸 아름다운 영상이 돋보이며, 국내 전문 성우진이 의기투합해 완성도를 높였다.

인생은 아름다워 Life Is Beautiful

로베르토 베니니 Roberto Benigni
이탈리아 | 1997 | 116분 | 극영화 | Color | 전체관람가
06.04(토) 21:00 | 안성면 두문마을

이탈리아의 유명한 코미디 배우인 로베르토 베니니가 감독, 각본, 주연을 맡은 세계영화사의 빛나는 걸작이다.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처참한 유대인 수용소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낸 아버지 '귀도'의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꾸준히 사랑받는 작품으로 사랑과 인생에 대해 다시금 곱씹을 수 있는 작품이다. 1999년 제71회 아카데미 시상식 남우주연상, 음악상, 외국어영화상, 제51회 칸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비롯해 전 세계 유수 영화제 62개 수상에 빛나는 작품이기도 하다.

대호 The Tiger

박훈정 PARK Hun-jeong
한국 | 2015 | 139분 | 극영화 | Color | 12세이상관람가
06.05(일) 21:00 | 안성면 두문마을

1925년 조선 최고의 명포수 '천만덕(최민식 역)'은 지리산 오두막에서 늦둥이 아들 '석(성유빈 역)'과 단둘이 살고 있다. 마을은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인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 '대호'를 찾아 몰려든 일본군으로 술렁이고, '대호'사냥에 열을 올린다. 호랑이를 표현한 CG가 놀랍도록 자연스러우며, 일제 강점기 사라져버린 호랑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신세계>의 각본과 연출, <부당거래>, <악마를 보았다>의 각본을 쓴 박훈정 감독의 최신작이자, 묵직한 연기로 관객을 압도하는 배우 최민식이 주연한 영화다.

반딧불시장 원형광장

산이 울다 Mountain C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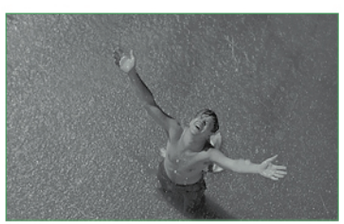
래리 양 Larry Yang
중국 I 2015 I 107분 I 극영화 I Color I 15세이상관람가
06.03(금) 20:00 | 반딧불시장 원형광장

산골 마을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배경으로 짜임새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영상미를 잘 조합한 1981년생 젊은 래리 양 감독의 데뷔작이자 가슴 아픈 사랑 영화다. 1984년 중국의 산골 마을, '한총'이 오소리를 잡기 위해 설치해 둔 폭약으로 인해 갓 이주해 온 '라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마을 어른들은 신고하지 않는 대신, '한총'이 '라훙'의 청각장애인 아내 '훙시아'를 돌봐주도록 한다. '훙시아'를 돌볼수록 그녀에게 끌린 '한총'과 이를 질투하는 과부 '친화'와 마을 사람들 간의 갈등은 점점 커져 간다.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트윈스터즈 Twinsters

사만다 푸터먼, 라이언 미야모토 Samantha Futerman, Ryan Miyamoto
미국, 한국, 영국 I 2014 I 89분 I 다큐멘터리 I Color I 12세이상관람가
06.04(토) 20:00 | 반딧불시장 원형광장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은 바로 사만다와 아니스 쌍둥이 자매가 페이스북을 통해 25년 만에 재회하게 된 사건이다. 태어나자마자 미국과 프랑스로 입양되어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살던 두 사람, 아니스가 유튜브를 통해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만다를 보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개인들의 만남을 이야기하지만 이 귀엽고 발랄한 소녀들의 만남에 눈물을 짓게 되는 건, 가족과 혈연에 대한 우리의 남다른 애착 때문이며,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해외 입양이 남긴 가슴 아픈 현실 때문일 것이다.



쇼생크 탈출 The Shawshank Redemption

프랭크 다라본트 Frank Darabont
미국 I 1994 I 142분 I 극영화 I Color I 15세이상관람가
06.05(일) 20:00 | 반딧불시장 원형광장

제작된 지 16년이 지난 지금에도 꾸준히 사랑 받고 있는 영화. 촉망받던 은행 부지점장 앤디는 아내와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쇼생크 교도소에 수감된다. 강력범이 수감된 이곳에서 재소자들은 짐승 취급을 당하거나, 간수 눈에 잘못 보이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적응하지 못하던 앤디는 간수장의 세금 면제를 도와주며 비공식 회계사로 일을 하게 되고, 조금씩 희망을 찾으려 하지만 이내 좌절당하는 일이 반복된다. 앤디는 감옥 생활에 길들여져 가면서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의 나약함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 <쇼생크 탈출>은 미국 영화 정보 사이트 IMDB에서 <대부>를 제치고 네티즌 평점 1위를 받았다.

적격자심사 주민시네마스쿨 수료작(진안군)

임준연 LIM Jun-yeon
한국 I 2015 I 14분 30초 I 극영화 I Color I 전체관람가
06.03(금) 19:30 | 반딧불시장 원형광장

서울 생활에 지친 주인공 요한은 진안으로 귀농하길 원한다. 귀농희망자들은 누구나 거쳐야 한다는 귀농·귀촌자 심사프로그램에 면접을 보기로 한 요한. 긴장감이 흐르는 면접장에서 계속되는 질문에 요한의 머리는 새하얗게 된다. 최근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귀농에 대한 상상과 풍자. 연극과 같은 구조로 귀농, 귀촌에 대한 의미를 곱씹어 본다.

비시랭이 사람들 주민시네마스쿨 수료작(진안군)

정선웅 JEONG Seon-ung
한국 I 2015 I 17분 47초 I 다큐멘터리 I Color I 전체관람가
06.03(금) 19:30 | 반딧불시장 원형광장

전북 진안에 있는 비시랭이 마을의 이야기. 척박한 산 속 마을, 오랜 시간 마을에서 살아온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비시랭이 마을의 풍경은 때론 아름답고, 때론 삶을 버겁게 만들기도 했다. 각 개인의 삶은 우리의 역사와 닮아 있다. 진안으로 귀농한지 8년째 접어드는 정선웅 감독의 첫 번째 다큐멘터리.

박쥐 주민시네마스쿨 수료작(임실군)

노성규, 이길명 NOH Seong-gyu, LEE Gil-myeong
한국 I 2015 I 17분 18초 I 극영화 I Color I 전체관람가
06.04(토) 19:30 | 반딧불시장 원형광장

<대부>와 같은 영화를 찍고 싶은 노감독은 여건에 맞춰 '스톱모션' 제작에 나선다. 교육 받는 내내 '협동'이 중요하다고 이야길 들어왔지만,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 투성이다. 공동연출인 박감독은 늘 자릴 비우고, 조명감독은 조명기를 집에 놓고 온다. 사사건건 도와주지 않는 일투성이지만 출품하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노력한다. 영화 시사를 하면서 박감독은 엔딩 크레딧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진 것을 보고 격분한다. 영화 입문 늦둥이들의 좌충우돌 영화 제작기.

잘못된 비밀 주민시네마스쿨 수료작(무주군)

김세혁 KIM Se-hyeok
한국 I 2015 I 8분 32초 I 극영화 I Color I 전체관람가
06.04(토) 19:30 | 반딧불시장 원형광장

학교 안. 대환이의 시계가 사라졌다. 민기는 대영이가 시계를 가져갔다고 이야기 한다. 모두 모여 도난당한 시계에 대해서 도난회의를 진행하지만 서로 자신의 시계라고 우기는 친구들. 민기는 대영이의 시계를 빌렸지만 잃어버리고, 학교 곳곳을 찾아보지만 시계는 보이지 않는다. 우연히 책상 위에 놓인 시계 하나를 본다. 빌렸던 시계에는 상처가 있었지만 대환이가 잃어버린 시계는 상처가 없다. 무엇이 진실이고, 누가 범인일까.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주민시네마스쿨 수료작(장수군)

서문수빈 SEOMUN Su-bin
한국 I 2015 I 10분 39초 I 극영화 I Color I 전체관람가
06.05(일) 19:30 | 반딧불시장 원형광장

전학생 승혜는 아직 새로 들어온 학교가 낯설다. 우연히 학교를 돌다가 문이 잠겨있는 빈 공간을 발견한다. 친구들에게 묻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반장은 학생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경고만 남긴다. 승혜는 4층에 숨겨진 비밀을 찾을 수 있을까? 단편영화지만 다양한 사운드를 통해 긴장감을 높이는 스릴러 영화다.

이게 사랑일까 주민시네마스쿨 수료작(장수군)

문유정 MUN Yu-jeong
한국 I 2015 I 10분 36초 I 극영화 I Color I 전체관람가
06.05(일) 19:30 | 반딧불시장 원형광장

같은 반 단짝 친구 허난과 유정. 난이는 남자친구가 생긴 유정을 보며, 자꾸만 질투를 하게 된다.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유정을 보며 느끼는 미묘한 감정에 난이는 유정을 피한다. 하지만 자꾸만 자신을 피하는 난이가 신경 쓰이는 유정은 난이를 몰아세우는데. 정체성이 확립되는 청소년기. 마음에 불어 닥치는 감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성장 영화.

공동주최&협력기관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상자료원은 국내 유일의 영화 아카이브 기관이다. 1974년 필름보관소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모든 영화 필름은 물론 시나리오, 포스터, 스틸사진, 문헌을 비롯하여 DVD, 온라인 영상물에 이르기까지 영화에 관련된 자료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다.

- **홈페이지** www.koreafilm.or.kr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서울영상미디어센터는 독립영화인들과 시민미디어활동을 지원하는 영상과 미디어 창작의 열린 공간으로 영화 이론, 독립영화 제작 워크숍, 후반작업기술, 스마트 미디어 강좌 및 찾아가는 미디어 교실을 운영한다.

- **문의** 02-2265-2204
- **홈페이지** www.media-center.or.kr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는 전주지역의 대표적인 대안적 공공문화시설이다. 수준별, 대상별, 지역별 영상교육프로그램을 연중 개설하고 있으며 영상 제작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구비, 시민들의 영상 제작을 돕고 있다.

- **문의** 063-282-7942
- **홈페이지** www.0simi.org

배리어프리영화 Barrier-free Film

'장벽이 없는', '장애물로부터 자유로운'이란 의미처럼, 시청각장애인들도 불편 없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든 특별 버전의 영화를 말한다. 일반 관객들이 보는 영화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어자막 등을 입힌 복합적인 전달방식을 통해 영화 감상의 이해를 돕는다.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전문 영화인들로 구성된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는 창작자인 감독이 제작에 참여하여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배리어프리버전을 완성하고, 본 영화가 지닌 풍부한 감정 표현과 주제를 장애인 관객들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음의 벽을 허물고 가슴으로 보는 배리어프리 영화가 더 많이 제작되고 상영되는 진정한 문화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신청 및 문의** 070-8713-8877
- **블로그** blog.naver.com/kobaff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는 영화를 통해 심리치료와 교육에 활용하여 심리상담, 교육, 멘토링, 리더십 교육 등을 하는 기관이다. 2008년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창립대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양성 연수 및 자격검정과 학술대회 등을 통해 발전을 하여 대중들에게 알려진 기관이다.

- **홈페이지** www.cinematherapy.co.kr

Event
이벤트

설렘존

EXCITING ZONE
영화와 음악공연으로 관객을 설렘에 빠지게 할 이벤트
행사장소 : 무주 산골영화관, 무주 등나무운동장, 예체문화관 일대

울림존

SYMPATHY ZONE
자연과 영화, 관객이 어우러지는 이벤트
행사장소 :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대집회장

어울림존

HARMONY ZONE
지역민과 관객 모두 어우러져 영화 콘텐츠로 공감할 이벤트
행사장소 : 무주 반딧불시장, 전통문화의 집, 안성면 두문마을

행사공간 소개 **설렘존 EXCITING ZONE**

산골영화관이 있는 예체문화관 일대와 무주의 대표 건축물인 등나무운동장은 설렘 가득한 공간이 될 것이다. 특히 등나무운동장은 '산골빌리지'로 이름 붙이고 개막식 및 야외상영과 다채로운 공연·이벤트 진행을 통해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공간구성 개·폐막식, 실내상영, 야외상영, 메인공연, 이벤트·체험부스, 포토존·전시, 영화제 부스(안내, 기념품, 물품보관소), 관객쉼터

산골빌리지

먹거리 장터 & 안내데스크, 기념품, 물품보관소

운영장소 무주 등나무운동장 I **운영시간** 10:00 ~ 22:00

전시 & 포토존

프로파간다 포스터전시

운영장소 예체문화관 광장 I **운영시간** 상시운영

РЯОРАGАНДА*
alternative graphics

- 관객들이 영화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포스터는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캐릭터·아트포스터와 국내영화 해외버전 포스터 등 프로파간다의 감각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포스터가 소개될 예정이다.
- 프로파간다(Propaganda)는 영화 포스터를 만드는 디자인 스튜디오이다.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대표작으로는 <비몽> <피에타> <옥희의 영화> <신세계> <워낭소리> 등이 있다. (홈페이지 propa-ganda.co.kr)

포토존, 영화 속 명장면을 만나다!

운영장소 예체문화관 앞 I **운영시간** 상시운영

〈괴물의 아이〉

〈바다의 노래 : 벤과 셀키요정의 비밀〉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

산골공방 관객 체험 프로그램

관객들이 직접 제작하고 체험하는
산골가족 추억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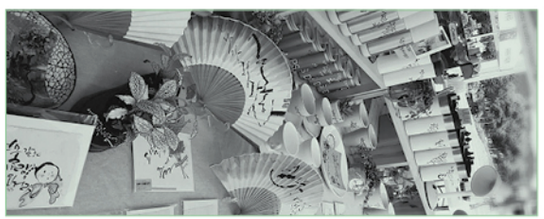
운영장소 무주 등나무운동장
운영시간 11:00 ~ 20:00(개막일은 17시부터 운영)

담쟁이생활재공방

무주 산골 아낙들이 유기농 당근머핀과 우리밀 브라우니를 들고 영화제를 찾아옵니다. 1일 30명 <소원을 담아 자신만의 팔찌 만들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산골마녀아트마켓

산골마녀아트마켓은 무주에서 활동하는 핸드메이드 작가들의 모임입니다. 이번 무주산골영화제에서 13명의 아트마켓 작가들과 함께 케이크, 가죽키링, 캔들까지 다양하고 알찬 체험 많이 준비했으니 싱그러운 6월! 마녀들 만나러 영화제로 꼭 소풍오세요.



아트컴퍼니

가슴으로 다가온 아름다운 서체 감성글씨 "캘리그라피"의 매력과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취미 중 하나인 가죽공예의 매력에 살짝 쿵! 빠져보는 시간.

오디너리데이즈

오디너리데이즈는 일상, 평범한 날이라는 이름처럼 자연스러운 향기와 디자인을 상상하며 만듭니다. 무주산골영화제에서는 산골이라는 이름과 어울리도록 꽃, 도토리, 나뭇잎 등을 소재로 한 석고 방향제나 향초를 만드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키덜트팩토리

키덜트팩토리는 "어른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란 컨셉으로 전주 한옥마을에서 2015년 1월 시작했습니다. 나만의 팔찌 만들기 체험과 다양한 캐릭터 소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전주 청년 창업의 대명사로 각종 언론 및 미디어에 소개되었습니다.

행사공간 소개 **울림존 SYMPATHY ZONE**

무주구천동 33경의 한 가운데 위치한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內 대집회장에는 관객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과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한 야외 영화 상영과 공연,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숲 속 야외극장을 마련한다.

공간구성 야외상영, 음악공연

무주 산골캠프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內 대집회장

별빛이 쏟아지는 숲 속 야외극장!!
영화와 음악 그리고 캠핑!

자연과 영화와 공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어울림의 공간에서
관객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여름밤의 꿈을 선사합니다.

덕유대 야영장 안내

장소 안내

-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519-7번지
- 야영장 종류 : 일반 야영지(4~6영지), 자동차 야영장(7영지)
- 야영장 시설 : 공동 샤워장, 화장실, 공동 취사장, 매점

※ 1~3영지의 경우 시설재정비로 인해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예약 안내

덕유산국립공원 일반야영지 및 자동차야영장 예약

- **예약 시작 일자** 2016년 5월 15일 (일)
- **예약 방법** 덕유산국립공원 홈페이지 접속 (http://reservation.knps.or.kr)
  ···›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으로 예약진행 ···› 기간 및 야영장 선택 ···› 결제진행
- **1일 사용시간** 당일 14:00 ~ 익일 11:00
- **문의**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063)322-3174

캠핑장 이용 주의사항

❶ 덕유산국립공원 야영장과 카라반, 텐트 등 야영장 예약 시 별도의 이용금액이 부과됩니다.

❷ 야영장 비예약자의 경우 캠핑이 불가하오니 캠핑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야영장 사이트가 남아있는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가능)

❸ 야영장 내 세면물품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 물품을 지참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❹ 캠핑을 하지 않는 일반 관객은 셔틀버스와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內 대집회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가 차량 이용 시 대집회장 주차장 이용)

※ 캠핑을 하지 않더라도 무료로 숲 속 야외극장 프로그램 관람이 가능합니다.

행사공간 소개

어울림존 HARMONY ZONE

무주 반딧불시장에서 전통문화의 집, 안성면 두문마을까지 각기 다른 세 공간의 특색있는 행사는 아름다운 자연과 영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어울림의 공간에서 영화제를 찾은 관객과 지역민에게 영원히 기억될 여름밤의 꿈을 선사한다.

공간구성 무주 반딧불시장(야외상영, 반딧불야시장)
전통문화의 집(실내상영)
안성면 두문마을(야외상영, 낙화놀이)

공연·이벤트 소개

설렘존 무주 등나무운동장

6월 3일(금) 19:30 [설렘존] 무주 등나무운동장 메인무대

<김반장과 윈디시티>
소울/펑크 밴드 '아소토 유니온'으로 커리어를 시작한 김반장은 흑인 음악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열정적인 드러밍과 강력하면서도 감미로운 목소리로 등장하였다. '아소토 유니온'을 이어, 역시 당시에 생소했던 레게음악을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밴드 '윈디시티'를 만들어 활동하였다. 김반장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트 메이커'이고 소울맨이다. 김반장만이 담아낼 수 있는 독특하고 낭만적인 메시지는 도시적이기도 하고 우리의 잠재된 뿌리와도 가까우며 그 누구도 따라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음악은 본인의 삶과 정확히 맞닿아 일치하여 강력한 에너지를 발휘한다.

<강아솔>
제주에서 온 강아솔의 노래는 솔직하게 다가가 듣는 이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강아솔의 공연에서 관객들은 웃다가 울다가 질은 여운을 안고 간다. 그래서 최근 인디씬 화제의 중심에 그녀의 노래가 있다.

6월 4일(토) 19:00 [설렘존] 무주 등나무운동장 메인무대

2016 여름을 여는 국악콘서트 "락"
<전라북도립국악원 x 경기도립국악단>
전라북도립국악원과 경기도립국악단의 합동으로 진행되며 전통과 퓨전·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무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 국악관현악단 90여명의 역동적인 야외 공연이 펼쳐진다. 국악가요와 영화음악 연주, 국악관현악과 비보이·써커스의 만남 등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6월 5일(일) 19:00 [설렘존] 무주 등나무운동장 메인무대

전주MBC 라디오 공개방송! <두시만세>
초미남 정진권! 초쾌남 이충훈!이 무주로 찾아온다.
진행 : 정진권, 이충훈
주파수 : 표준FM 94.3MHz
초대가수 : 박상철, 문연주, 홍원빈, 조은새, 방승현 등

공연·이벤트

울림존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內 대집회장

6월 3일(금) 19:00 [울림존]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內 대집회장

<김목인>
김목인은 노래로 음악가의 밭을 일구는 싱어송라이터이다. 또박또박 묘한 설득력을 가진 그의 노래는 팬들 뿐만 아니라 동료 음악가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다.

<빅베이비드라이버>
빅베이비드라이버의 목소리는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인상에 깊게 새겨지는 구름과 같다. 기타를 무척 좋아하는 빅 베이비드라이버는 포크, 어쿠스틱 블루스, 인디팝을 넘나드는 싱어송라이터이다.

6월 4일(토) 19:00 [울림존]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內 대집회장

Acoustic Instrumental Band <신나는섬>
바이올린, 아코디언, 퍼커션, 기타, 우쿨렐레, 하모니카 등 다양한 악기들로 구성된 신나는섬은 어쿠스틱 악기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운드에 대한 시도를 거듭하며 창작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5인조 밴드이다. 삶을 바라보는 동화적 시선과, 꿈과 현실을 오가는 상상력을 표현하기 위해 폴카, 아이리쉬, 집시, 스윙 등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와 장르의 구애를 받지 않는 신나는섬 만의 독특한 음악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6월 5일(일) 19:00 [울림존]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內 대집회장

<뮤즈그레인>
지난 2006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가장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음에도 단 하나의 상도 받지 못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무관의 제왕" 뮤즈그레인. 당시 이들의 재즈와 클래식을 접목한 실험적인 음악과 매혹적인 보컬은 음악 팬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고 이는 곧 열렬한 지지로 나타났다. 현재 전주를 기반으로 가장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밴드이다.

<이상한계절>
모던포크듀오 '이상한계절'은 환절기에 만났다. 크고 작은 무대를 통해 들꽃처럼 성장해온 '이상한계절'은 그들의 '이상'처럼 떠나가는 계절의 아쉬움과 돌아오는 계절에 대한 기대가 함께 담겼다. 편안한 아날로그적 소통을 추구하면서도, 실험적인 음악적 시도를 더해가는 '이상한계절'은 2014년 발매한 첫 EP '봄'을 통해 tvN '아홉수소년', SBS '룸메이트' 등에서 인정을 받았다. 올해까지 세장의 싱글을 추가로 발매하면서 음악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면서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공연·이벤트

어울림존 무주 반딧불시장 / 안성면 두문마을

6월 3일(금) ~ 5일(일) 18:00 ~ 22:00 [어울림존] 무주 반딧불시장

<무주 반딧불장터 야시장>
쓰리고 대박 !
「맛있게 먹고! 신나게 놀고! 재밌게 보고!」
푸드코트 및 아트마켓, 체험거리 운영(어린이)

6월 3일(금) ~ 5일(일) 20:00 [어울림존] 안성면 두문마을

<안성면 두문마을 낙화놀이>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은 '불꽃이 춤추는 마을'로써 옛날 전통 모습을 되살리고, 일제 강점기에 단절된 전통 민속놀이인 '낙화놀이'를 낙화놀이보존회에서 2006년 복원하였고, 2007년부터 매년 마을에서 낙화놀이를 재연하고 있다. 2012년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자체축제 및 기업행사에 낙화놀이 시연으로 마을 주요 소득사업으로 육성 활동 중에 있다.

만든사람들

산골친구

강형구 강희은 권하형 권현진 김수현 김승재 김윤기 김정현 김한결 김형균 노주화 류진희 문송아 박소현 박준형 배강유 서윤아 성연규 송다솔 신정희 안희오한솔 우마루내 원세영 이소정 이송이 이승재 이아름 이지윤 임보람 임소희 임하정 전새미 정소영 채희선 최재훈 최해은 하재림 한성규 한소미 한승연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황정수

조직위원
김상선
이대석
한용성
홍명현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유기하

부집행위원장
박현주
조지훈

집행위원
곽지현
권용주
김병현
박종관
윤양택

자문위원회
김 건
김동원
민병록
정상진
표종록

.

스태프

프로그래머
조지훈

사무국장
신동환

기획운영팀
김형준 배설화 오수민 조세진

프로그램홍보팀
김구슬 이상규 이은빈 이진선

개막 코디네이터
이정우

도움주신 분들

강범희 (밀모, 빨강치마)
강보영 (샘표)
강우선 (알토미디어)
강지은 (영화사 찬란)
강충희 (미어필)
강혜경 (무주군청 농업기술센터)
고아라 (인디스토리)
고영주 (전북영화비평포럼)
고재춘 (태권도진흥재단)
고정욱 (전북대학교)
곽병창 (우석대학교)
곽지현 (커뮤니케이션즈 온)
구화정 (디자인스튜디오 page9)
권순원 (한국마이스터)
권순환 (그린나래미디어)
기명상 (배럴)
김 건 (전북대학교)
김 영 (한국영화아카데미)
김 용 (태권도진흥재단)
김경진 (인천영상위원회)
김국현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
김다영 ((주)더큼)
김동필 (무주군청 기획조정실)
김두태 (아카데미광고기획)
김미영 (한국마이스터)
김미지 (투어MBC)
김민준 (판씨네마(주))
김병권 (무주반딧불 해외관광)
김삼중 (무주반딧불축제)
김상선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김상윤 (씨네룩스)
김선미 (삼점일사)
김선태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김선태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
김성남 (주식회사 루믹스미디어)
김성태 (태권도진흥재단)
김성희 (전북영화비평포럼)
김소영 (레드페이스)
김시내 (오드)
김양령 (NINE)
김영광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김영묵 (밀모, 빨강치마)
김영빈 (모우엔터테인먼트)
김영현 (전주영상위원회)
김예원 (영화사 진진)
김오수 (마을만들기사업소)
김우근 (NEW)
김우성 (알양로지스)
김은정 (한국베리어프리영화위원회)
김은주 (홀리가든)
김인화 (인디스토리)
김일권 (시네마달)
김작가 (대중음악평론가)
김재용 (영화사 진진)
김정민 (씨네그루)
김정현 (문화나들이)
김종균 (전라북도립국악원)
김종근 (영화공간)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김지선 (전주MBC)
김지은 ((주)엔케이컨텐츠)
김지형 ((주)루스이소니도스)
김지희 (디자인스튜디오 page9)
김진경 (문화나들이)
김태림 (부산국제영화제)
김태용 (영화감독)
김태훈 (더블엔비 컴퍼니(주))
김학중 (THE픽처스)
김현영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김현태 (전북대학교)
김형례 (일양로지스)
김형주 (씨엔씨월드)
김혜나 (영화배우)
김혜리 (씨네21)
나용국 (모멤텀엔터테인먼트)
노상은 (무주군청 군수실)
노정민 (푸르밀)
노창우 (한국영상자료원)
맹수진 (환경영화제)
모은영 (한국영상자료원)
목서윤 (전주MBC)
문병용 (전주영화제작소)
문보경 (대명문화공징)
문영훈 (삼천리 자전거)
문인환 (법무사 김종대 사무소)
박기섭 (허밍로즈)
박길춘 (무주군청 시설사업소)
박동우 (프로파간다)
박동현 ((주)더큼)
박디 (박영준, 일러스트레이터)
박미영 (씨네룩스)
박민오 (H힐스 리조트)
박병곤 (전라북도청 문화예술과)
박병규 (그린나래미디어)
박병근 (유니버셜픽쳐스인터내셔널코리아)
박상아 (CJ E&M)
박선미 (리틀빅픽쳐스)
박성철 (전주MBC)
박연숙 (허밍로즈)
박용현 (무주반딧불축제)
박은정 (NEW)
박은주 (알토미디어)
박재영 (문화나들이)
박정효 (CGV 아트하우스)
박지예 (CGV 아트하우스)
박지현 (연필로 영상하기)
박진아 ((주)판다미디어)
박진영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박진우 (아트영상)
박 찬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박현규 (전라북도청 기획관)
박혜진 (엣나인 필름)
백정민 (전주영상위원회)
백지선 (휴림)
서영주 (화인컷)
서홍원 (안성면 두문마을)
소민수 (호산나음향)
송민석 (에스디시코리아 주식회사)
송유진 ((주)티캐스트)
송현용 (푸르밀)
신지민 (리틀빅픽처스)
신현철 (씨네그루)
심민오 (전라북도청 문화예술과)
심유신 ((주)티캐스트)
심재주 (심스튜디오)
안재훈 (연필로 영상하기)
안지영 (푸르밀)
안지은 (한국영상자료원)
양상규 (무주양수발전소)
양정화 (마리끌레르필름페스티벌)
엄현주 (메가박스플러스엠)
여지연 (CGV아트하우스)
오서은
오종민 ((주)박수엔터테인먼트)
우성식 (커뮤니케이션즈 온)
유제원 (레드페이스)
유진희 (CJ E&M)
유창국 (무주군청 시설사업소)
유현주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윤석중 (전라북도청 문화예술과)
윤엄지 (전주영상시민미디어센터)
윤정실 (한국마이스터)
윤홍득 (레드페이스)
이경신 (시뉴필름)
이경원 (천마니)
이관배 (무주구천동게스트하우스)
이광석 (서해이벤트)
이남호 (전북대학교)
이동형 (프로파간다)
이민하 (한국마이스터)
이병국 (새만금개발청)
이상섭 (완주휴시네마)
이선영 (전주영화제작소)
이성희 (메가박스)
이슬비
이승주 (더블엔비 컴퍼니(주))
이예슬 (커뮤니케이션즈 온)
이용철 (영화평론가)
이윤희 (미로비전)
이일주 (베럴)
이재갑 (완주휴시네마)
이재성 (베럴)
이정구 (전주MBC)
이정진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이정채 (전북대학교)
이종문 (푸르모디티)
이지연
이지혜 (영화사 찬란)
이태동 (전주MBC)
이해영 (영화감독)
이혜진 (시네마달)
이희관 (전라북도청 문화예술과)
임경택 (무주군청 농업소득과)
임동식 (전주MBC)
임동식 (하이트 진로)
임명근 (완주휴시네마)
임선희 (무비인무주)
임소정
임아영 (영화진흥위원회)
임학수 (전주영화제작소)
장규호 (푸르모디티)
장성란 (메가진M)
장준갑 (전북대학교)
장필재 (그레미)
장혜진 (커뮤니케이션즈 온)
전계수 (영화감독)
정동섭 (전북영화비평포럼)
정동호 (엣나인 필름)
정민화 (한국영상자료원)
정상진 (엣나인 필름)
정상철 (석정수)
정상현 (레드제플린)
정선민 (신필름)
정윤재 (빈스로드)
정윤재 (헤드플레이)
정진욱 (전주영상위원회)
정태원 (영화사 진진)
정태후 (전주MBC)
조 석 (한국수력원자력(주))
조규변 (다연세무회계사무소)
조문수 (휴림)
조미숙 ((주)누리픽처스)
조영각 (서울독립영화제)
조원국 (한국영상치료학회)
조은경 (영화사 조제)
조장훈
조재훈 (미어필)
조한혜정
조효진 (점프엔터테인먼트)
주성철 (씨네21)
주 희 (엣나인 필름)
주현희 (영화사 백두대간)
진명현 (무브먼트 픽처스)
천세진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천정환 (엣나인 필름)
최낙용 (영화사 백두대간)
최대영 (무주양수발전소)
최대원 (휴림)
최성은 (전주시민미디어 센터 영시미)
최승호 (모멘텀엔터테인먼트)
최아영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최영관 (무주군청 기획조정실)
최일섭 (안성면 두문마을)
최지중 (프로파간다)
최현정 (유니버셜픽쳐스인터내셔널코리아)
켄타 후데사카 (유니재팬)
표종록 (JYP 픽처스)
하성용 (무주군 부군수)
하승우 (한양대학교)
한규돈 ((유)동아관광)
한동희 (프리랜서)
한버들 (무주반딧불 해외관광)
한새미 ((주)엔케이컨텐츠)
한정윤 ((주)얼라버드픽처스)
허준철 (무주군청 시설사업소)
허진수 (대명레저산업)
홍달님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홍영주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홍한일 (무비인무주)
황명애 (무주산골영화관)
황수진 (인디스토리)
황승언 (영화배우)
황조연 (무비인무주)
황주형 (메가박스플러스엠)

무주산골영화제
홈페이지

무주산골영화제
트위터

무주산골영화제
블로그

무주산골영화제
인스타그램

무주산골영화제
페이스북

무주산골영화제
유튜브

무주산골영화제 홈페이지 http://www.mjff.or.kr
무주산골영화제 블로그 http://blog.naver.com/pronovis
무주산골영화제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ujufilmfestival
무주산골영화제 트위터 @mjff2013
무주산골영화제 인스타그램 @mujufilmfest
무주산골영화제 유튜브 http://www.youtube.com/mujufilmfestival

발행일 2016년 5월 2일

발행인 유기하
책임편집 조지훈
편집 김구슬
글쓴이 조지훈, 김구슬
교정 조지훈, 신동환, 김구슬, 김형준, 배설화, 이상규, 조세진, 오수민, 이은빈

디자인 구화정 page9
인쇄 아이엠피 IMP

무주산골영화제 사무국
54986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 1길 50 2F
전화번호 063.220.8253
팩스 063.220.8254
www.mjff.or.kr

www.glami.com

제43회 발명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훈

한국표준협회 로하스인증

세계 11개국 국제발명 특허품
숙취해소에 정말 좋은 **여명808®**

세계 발명왕 남궁현

-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명예 경영학박사
- 순천향대학교 명예 보건학박사
- 용인대학교 명예 경영학박사
- 동국대학교 명예 약학박사
- 사단법인 대한유도회 회장

숙취해소 808
여명808~ ♪
음주전후 숙취해소
마시자 808
해외특허 808 ♬
정말좋아요~
여명808!

벌써 깬겨?

가까운 지사, 약국, 편의점, 대형할인마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기업 주식회사 그래미 제품구매 문의 및 소비자 상담전화 080-4073-808 또는 한글전화번호 1636 에 전화걸고 안내에 따라 숙취해소 또는 여명808 이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물은 물 맛도 다릅니다.

먹는 샘물 석정수는 암반 대수층에서 뽑아 올린 원수(原水)에
세심한 정성을 더하여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먹/는/샘/물 석정수

전북 완주군 소양면 복은길 46-39
TEL : 063) 263- 4222(代) FAX : 053) 263-5666

좋은 재료보다 더 맛있는 요리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재료의 참맛을 살리는
요리 에센스 [연두]

100% 순식물성
콩발효 요리 에센스

자연의 신선함을

푸르밀

건강의 시작! 푸르밀로 부터

푸르밀은 자연의
푸르름, 순수함, 신선함을 뜻하며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소비자 여러분께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이념을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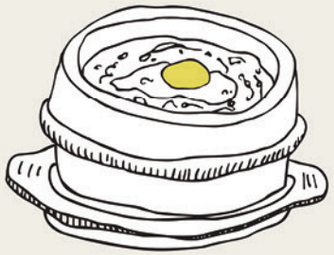
푸르밀 전속모델 **하지원**

문의처 : 080-700-2001 / www.purmil.co.kr

삼백그릇의 정성

삼백집

날계란 하나 · 삼백그릇의 정성
당신의 맛있는 생활속으로 들어갑니다



날계란 한 알이 들어간...

illust by ogisa

휴림(주) www.300zip.com

본사대표전화 1666-1947 | 서울경기지역본부 02-3431-9423 | 충청지역본부 070-8600-3100

Hot Summer! Hotter Festival!

2016 JUMF

JEONJU ULTIMATE MUSIC FESTIVAL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

전주종합경기장

8/5(FRI)·6(SAT)·7(SUN) PM.12:00~24:00

스틸하트의 밀젠코 마티예비치 / 국카스텐 / YB / 크라잉넛 / 전인권밴드 / 장미여관
로열파이럿츠 / 노브레인 / 바비킴 / DJ DOC / I.O.I / DJ SODA / DJ KOO

홈페이지 www. jumf.co.kr 예 매 인터파크 (http://ticket.interpark.com) 문 의 063.220.8288

주최 · 주관 | 전주 MBC 후원 | 전라북도 KOREAN AIR

TRAVEL

무주챌린지 투어버스운영

무주의 주요관광지를 계절마다
편하고 알뜰하게 관광 할 수 있는
투어버스!! 꼬오옥 놓치지 마세요^^

○ **운영기간** : 2016. 4월~11월(주말/국공휴일/축제 : 총63일)

봄 철(13일)	4월 16, 17, 23, 24, 30일 5월 1, 5, 7, 8, 14, 15, 21, 22일	주말/국공휴일
산골 영화제(5일)	6월 2, 3, 4, 5, 6일(매일)	축제기간
여 름 철(24일)	7월 23일~8월 15일(매일)	매일
반딧불 축제(9일)	8월 27, 28, 29, 30, 31 9월 1, 2, 3, 4일(매일)	축제기간
가 을 철(12일)	10월 15, 16, 22, 23, 29, 30일 11월 5, 6, 12, 13, 19, 20일	주말/국공휴일

○ **투어코스** : 5개 코스, 계절에 따라 투어코스변경 운영
무주↔태권도원, 무주↔적상산전망대, 구천동↔반디랜드, 구천동↔적상산 와인동굴, 칠연계곡 용추폭포↔머루와인동굴(여름철)
○ **운행시간** : 09:00 ~ 18:00
○ **탑 승 료** : 1,000원(1인당)-미취학아동 무료
○ **탑승권판매처** : 관광안내소 및 현장판매
○ **인터넷예약** : 위메프 www.wemakeprice.com
○ **안 내 자** : 관광 길잡이 탑승안내
무주군관광안내소1899-8687
무주군관광협의회 063)323-7787

무주챌린지 월별 미션 마스터 이벤트

월별 마스터 이벤트에 참여하여 탁월한 SNS홍보를 한 분들께
자체심사를 통해 이천만원 상당의 푸짐한 포상을 드립니다.^^

http://instagram.com/mujutour/ http://facebook.com/tourmuju/

**해당 관광지에서 본인 얼굴이 있는 인증 사진과 함께 홍보글을 sns에 올려주세요~ (연말 심사까지 지우시면 안돼요^^)
무주군민은 참여가 어려우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투어마스터 이벤트왕 **대상** 6,000,000원 이백만원 상당×3명
**월별 모든 미션 마스터 및 탁월한 SNS홍보(자체심사)
투어마스터 이벤트왕 **최우수상** 6,000,000원 삼십만원 상당×20명
**월별 모든 미션 마스터 및 SNS홍보
투어마스터 이벤트왕 **참가상** 8,000,000원 사만원 상당×200명

참여신청방법 무주군관광안내소 1899-8687

OUTDOOR
CLASSIC
THE REDFACE
OUTDOOR CLASSIC 레드페이스
궁극의
완벽함
완벽한 방풍성·경량성·내구성
레드페이스 브로드 피크 재킷은
초경량 소재인 "쉘텍스 엑스 라이트" 소재를 사용하여
가벼우면서도 완벽한 방풍성과 내구성을
보장하는 바람막이 재킷입니다.
브로드 피크 재킷
사이즈 : 여-90~110 / 남-95~115
칼라 : 여-네이비,레드,옐로우,그레이 / 남-블랙,네이비,레드,그레이
₩138,000 → ₩ 69,000
플렉스 트레킹 팬츠
사이즈 : 29, 30, 32, 33, 34, 36, 38, 40 / 칼라 : 블랙, 차콜, 카키
₩138,000 → ₩ 69,000
콘트라 PFS 카이 워킹화
사이즈 & 칼라 : BK 230~300 RE 230~300 WI 230~300
NA 230~300 PU 230~255 GY 230~300
₩148,000 → ₩ 98,000
Jacket.브로드 피크 재킷 블랙 ₩69,000
Pants.플렉스 트레킹 팬츠 차콜 ₩69,000
Bag.파이안32L 올리브 ₩118,000
shoes.콘트라 PFS카이 워킹화 블랙 ₩98,000
(주)레드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51-3(봉은사로 214) 레드페이스빌딩 2층 www.theredface.com
대리점 개설문의 (02)3434-3421